

2022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학술 세미나 자료집 * 외부공개용

일본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도광산’의 강제동원 역사 왜곡

DATE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14:00~16:00

PLACE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Zoom 웨비나

PROGRAM

사회_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본 ‘사도(佐渡)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정혜경(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

근대기의 세계유산: 갈등과 극복의 조건
강동진(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

지정토론

허광무(한일민족문제학회 회장)
조건(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사도광산 역사 왜곡 강제동원

2022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학술 세미나 자료집

일본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도광산’의 강제동원 역사 왜곡

사도광산 역사 왜곡 강제동원

목차

인사말씀·축사

인사말씀	05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김용덕 이사장	
축사	07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윤병일 단장	

Session 01. 주제 발표

사회_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01. 자료를 통해 본 미쓰비시‘사도(佐渡)광산’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08
-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	
02. 근대기의 세계유산: 갈등과 극복의 조건	58
- 강동진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 ICOMOS 한국위원회 이사	

Session 02. 지정 토론

01. 미쓰비시 사도(佐渡)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에 대해	78
- 허광무 한일민족문제학회 회장	
02. 강동진, 「근대기의 세계유산: 갈등과 극복의 조건」에 관한 토론	81
- 조건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인사말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김용덕입니다.

오늘 재단에서 개최하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사도광산」의 강제동원 역사 왜곡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5년 일본 정부가 군함도 등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이 있는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바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 정부의 우려를 반영하여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강제연행의 사실을 밝히도록 하였고, 일본 대표도 이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을 전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달 28일, 일본 문화청은 또 한 번 강제동원 역사를 지닌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재단은 국내 강제동원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강제동원 피해자의 존엄 회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에서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또 언론 종사자 분들을 모시고 논의해보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참석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불가피하게 영상으로밖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코로나 상황을 벗어나, 자유롭게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는 때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뜻깊은 이야기들이, 향후 사도광산을 포함한 강제동원 관련 일본 산업유산 등재 대응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김용덕

축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윤병일 입니다.

오늘 ‘일본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와 진상규명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대응’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일본의 역사 왜곡의 심각성과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움직임이 있는 시기에 시의적절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김용덕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발표를 맡은 정혜경 위원님과 강동진 교수님, 토론을 맡아주신 허광무 회장님과 조건 위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직접 참석해 주시지는 못하셨지만 온라인을 통해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유가족분과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난 2015년 군함도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동원 명시’ 약속을 불이행하는 등 역사적 과오는 감추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신청은 지난 2015년 등재를 교훈삼아 충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지난 2015년 군함도와 이번 사도광산 강제징용이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의 가치에 부합하는 지도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도광산에 강제 동원된 우리 선조들의 실태와 진상이 조금이나마 규명되고, 일본이 사도광산의 진실을 숨긴 채, 유네스코 등재를 시도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를 준비하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 1. 27.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2022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학술 세미나

일본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도광산’의 강제동원 역사 왜곡

Session 01. 주제 발표

01.
자료를 통해 본 미쓰비시 사도(佐渡)광산
조선인 강제노동 실태

정혜경(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



01. 자료를 통해 본 미쓰비시 사도(佐渡)광산 조선인 강제노동 실태

정혜경(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

목차

1. 머리말
2.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동원
3. 자료를 통해 본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동 실태
 - 1) 동원주체(일본 정부, 기업)가 생산한 자료
 - 2) 명부에 나타난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동 실태
 - 3) 피해자의 기록을 통해 본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동 실태
4. 맺음말 - 완전한 역사를 공유하기 위한 길

1. 머리말

2021년 12월 28일 일본 문화심의회는 니가타(新潟)현 사도(佐渡)시 소재 사도광산을 2023년 세계문화유산 추천 후보로 선정했다. 만약 일본 정부가 2022년 2월 1일까지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추천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한다면 사도광산은 일본의 세계문화유산 후보가 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등재 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본이 사도광산의 대상 시기를 센고쿠(戰國)시대(1467~1590년) 말부터 에도(江戸)시대(1603~1867년)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일본이 신청하려는 시기는 1467년부터 1989년까지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등재 시도는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유네스코의 입장과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유네스코는 일관되게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대상에 대해 신청 기간을 전후한 모든 역사를 기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2015년 일본이 등재한 ‘일본 규슈(九州)·야마구치(山口) 일원의 공장·탄광 유적(일명 근대산업유산)’이다. 당시 일본은 2차 세계대전 기간을 제외하고 메이지 시기로 제한해 등재했지만 유네스코는 신청 기간 전후 역사를 모두 서술하라고 권고했다. 이 입장은 2021년 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문 채택을 통해 명확해졌다.

두 번째는 사도광산이 신청하려는 현장(Site)의 대부분은 에도 시기 이후에 조성된 시설이라는 점이다. 일본 측이 에도시대에 조성했다고 주장하는 시설도 에도시대 이후 쇼와(昭和)까지 사용했던 곳이다.¹⁾ 『사도광산사』초고 원고에서도 “부유선광장을 신설하는 등 획기적인 개혁을 실현해 여러 곤란을 극복하고 1940년에 생산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기술했다.²⁾ ‘획기적인 개혁’이라 언급한 부유선광장은 1938년에 설치한 시설이다. (주)골든 사도가 개설한 사도광산 홍보 홈페이지(<https://www.sado-goldmine.jp/towards/>)에 따르면, 사도광산의 상징물이라고 하는 ‘V자형 산봉우리’도 1885년에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한 결과물이다. 니가타현 홈페이지(<https://www.city.sado.niigata.jp/site/mine/4487.html>)에서 내세우는 사도광산의 독특한 제련법(灰吹法, 하이후키호³⁾)도 조선에서 전수받은 기술일 뿐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1990년대에 일본 광산학계에서 ‘중국에서 조선에 이전한 기술을 일본이 전수했음’을 입증했다. 구체적으로 1503년에 조선의 단천은산에서 사용한 기술을 이와미(石見)은산이 이전했다고 제시했다.⁴⁾ 이같이 사도광산이 자랑하는 에도의 제련기술은 당시 동아시아의 교류에 따른 산물이자 사례 중 하나다.

장소성이란 역사성의 축적물이다. 하나의 유적에는 수백 년이 넘는 역사의 더께가 쌓여간다. 1467년~1989년(폐광)까지 사도광산의 현장이 쌓아온 역사의 더께에서 1467~1867년만을 발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2021년말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은 바로 상식을 회복하는 세계시민의 노력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세계시민이 공유해야 하는 완전한 역사(Full History)를 알기 위해 사도광산이 담고 있는 역사로 들어가보자.

에도시대 사도광산은 무숙인(homeless)과 죄수들의 노역지이기도 했다. 2021년 7월 21일에 방영한 일본 NHK 프로그램(역사탐정 - 천하인의 야망, 사도금산)에 따르면, 에도시대 절해고도(絶海孤島) 사도섬 광부들의 수명은 2~3년에 불과했다. 참혹함을 알 수 있다. 참혹한 역사는 그 뿐 아니다.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도 있다.

이 발표에서는 자료를 통해 미쓰비시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동원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자료는 크게 동원주체의 자료와 피해자의 기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원주체의 자료로는 사도광산이 감독기관에 제출한 보고서 2건과 공탁금 현황 자료이다. 피해자의 기록은 2015년에 해산한 위원회(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임태호의 구술기록이다. 그 외 2건의 조선인 노무자 명부가 있다. 이같이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자료는 일부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사료의 조각을 모으고 맞추는 일은 산적해 있다.

1) 상세한 내용은 정혜경·허광무, 『탐욕의 땅, 미쓰비시 사도광산과 조선인 강제동원』, 도서출판 선인, 2021, 57쪽

2) 平井榮一, 『佐渡鑛山史 稿本』, 1950, 419쪽, 844쪽(일제피해자지원재단 제공 자료)

3) 작게 분쇄한 광석에서 금은분(불순물 포함)을 회수해 납과 같이 숯불로 녹여서 금은과 구리의 합금을 만든 후, 합금을 솥에 넣고 가열해서 금과 은을 추출하는 방식

4) 萩愼一郎, 『鑛山』, 『新體系 日本史2 - 産業技術史』, 山川出版社, 2001, 90~92쪽. 일본에서는 재취법을 이와미은산이 1533년에 하카타의 상인이 독자적으로 만든 기술을 받아들이고 독창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자료 제공 박한무

그간 피해의 역사에서 실증주의는 부정론자들이 ‘있었던 사실’을 부정하는 반박 도구, 즉 ‘부정의 실증주의’로 사용되기도 했다. 특히 문서가 아닌 기억에 토대한 상대방의 증언이 지닌 허점을 파고들어 기억의 진정성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사용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나 나치의 유대인 집단학살, 난징(南京) 대학살 문제 등이다.⁵⁾ 그러한 점에서 실증주의는 ‘있었던 사실’에 다가서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일일이 ‘부정의 실증주의’에 맞서는 것은 소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2015년 ‘근대산업유산’ 등재 후 도쿄의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실증주의를 앞세운 역사 왜곡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사도광산의 등재 과정을 통해 가속화될 수 있다. 소모적이라고 외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있었던 사실’에 대한 진지함과 학문적 성실함으로 ‘부정의 실증주의’와 맞서야 한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사실의 무게’를 느끼며, 스스로 ‘부정의 실증주의’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학계의 역할이다. 이 발표를 통해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자료(문헌, 구술)를 분석 소개하는 이유이다.

2.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동원

사도광산은 일본 헤이안(平安) 시대 말부터 사금의 산지로 알려졌고 1542년에 은을 캐기 시작해 1601년부터 금산을 운영한 후 1989년까지 주로 금을 캐는 곳이다. 센고쿠 시대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사도광산의 은을 임진왜란 당시 군자금으로 사용했고, 에도 막부 시대의 권력자들은 통치자금으로 사용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기에는 침략전쟁을 위한 군수물자 원료조달처였다. 이같이 사도광산은 침략전쟁을 위한 탐욕의 땅이었다. 그곳에 조선인이 있었다. 일본의 침략전쟁에 강제동원된 조선인이었다.

에도 막부의 권력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는 1601년에 사도섬을 천령(天領)이라는 직할령으로 지정하고 1603년 일부를 직영으로 운영했다. 그러다가 메이지(明治) 정부가 들어서자 정부의 관유화 조치에 따라 1868년 공부성(工部省)이 소유하게 되었다. 그 후 농상무성(農商務省)과 대장성(大藏省)을 거쳐 1889년 궁내성(宮内省) 어료국(御料局) 소유로 바뀌었다가 1896년에 미쓰비시 합자회사의 손에 넘어갔다. 미쓰비시 합자회사는 1918년 미쓰비시광업(주)이 되었다.

미쓰비시는 1871년 5월부터 탄광업을 시작했다. 미쓰비시 그룹의 일원인 미쓰비시광업(주)은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할 당시 일본에서 18개소의 탄광과 28개소의 광산을 운영했다.⁶⁾ 한반도와 중국 만주, 동남아시아, 사할린 등에서 운영한 탄광과 광산을 합하면 규모는 훨씬 많다. 모두 조선인을 동원한 현장이다.

5) 임지현, 『기억전쟁』, 휴머니스트, 2019, 36~37쪽

6) 三菱礦業セメント株式會社總務部社史編纂室 編, 『三菱礦業社史』, 1976, 210쪽

일본 패전 이후에도 금 채굴은 계속했으나 바다 아래 갯내 채광장이 수몰되면서 1952년부터 일부 시설을 폐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9년 3월 모든 채굴을 중단하고 미쓰비시 머터리얼(미쓰비시광업(주)의 후신)의 자회사인 (주)골든 사도가 운영권을 인수했다. 1896~1989년간 미쓰비시가 채굴했던 세월은 103년이 고, 지금도 미쓰비시 그룹 소속이다.⁷⁾



〈그림 1〉 미쓰비시 마크가 선명한 벽(2019.5.13. 촬영)



〈그림 2〉 건물 기와에 새긴 미쓰비시 문양

일본이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전에도 사도광산에는 조선인이 있었다. 최초의 조선인은 1889년 궁내성 어료국이 설치한 사도 광산학교(기술자 양성소) 입학생이다. 1892년 4월 제1회 졸업생 명단에서 조선인 박창규(朴昌圭), 구연수(具然壽), 박치운(朴致雲)의 이름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조선 정부의 광산 정책에 따라 입학해 근대 광산학을 배웠다.⁸⁾

이후에도 돈벌이 조선인이 있었다. 미쓰비시광업(주)이 작성한 자료(1902~1929년)에서 확인한 조선인 노동자 21명이다. 21명에 불과했던 사도의 조선인 광부는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일으킨 후 큰 규모로 늘어났다.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동원은 당국이 정책을 수립하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한반도에서 일본지역으로 노무자 송출은 1939년 7월 4일 각의결정 ‘쇼와 14년도 노무동원 실시계획 강령’과 1939년 7월 28일 일본 내무성·후생성 차관이 내린 정책 통첩(「조선인 노무자 내지 이주에 관한 건」)에 따라 9월부터 실시했다. 그러나 사도광산은 이보다 앞선 1939년 2월부터 조선인 동원을 시작했다. 사도광산 측은 1939년 2월 할당모집 방법으로 충남지역 출신자들을 제1진으로 동원했다. 제1진으로 입산한 조선인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당시 노무과원은 “내지인(*일본인) 갯내노무자에게 규폐(진폐)환자가 많아 출광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내지의 젊은이들이 군대로 가야 하므로” 조선인을 동원했다.⁹⁾

7) (주)TEM研究所, 『佐島金山』, (주)GOLDEN佐島, 2001, 2~3쪽

8) 相川町史編纂委員會, 『佐渡相川の歴史 - 通史編, 近現代』, 1995, 233~241쪽

9) 相川町史編纂委員會, 『佐渡相川の歴史 - 通史編, 近現代』, 1995, 680쪽

사도광산이 남긴 자료에 따르면, 1940년 2월부터 1945년 7월까지 조선인을 동원했다. 충남지역에서 시작해 경북, 전남, 전북, 충북, 함남 등으로 동원지역도 넓어졌다. 현재 파악한 동원 규모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규모 현황(단위: 명)

연번	조사 시기	동원 인원*	현재 동원 인원**	근거
1	1940년	850(모집허가)/ 651(동원)	-	(재)중앙협화회 자료
2	1940년 7월	-	332	사도광업소 자료
3	1942년 6월	1,003	802	(재)중앙협화회 자료
4	1943년 5월	1,005	584	사도광업소 자료
5	1943년 5월	-	584	히라이 에이이치(平井榮一), 『佐渡鑛山史 稿本』, 1950, 846쪽
6	1944~1945년	514 (1,005+514=1,519)	(584+514=1,168)	平井榮一, 『佐渡鑛山史 稿本』, 846쪽 ※증가분 ¹⁰⁾
7	패전 당시	1,200	-	相川町史編纂委員會, 『佐渡相川の歴史 - 通史編, 近現代』, 1995, 680쪽 ※추정치
8	패전 당시	2,379	-	『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者+新史料』, 6~7쪽
9	1949년 2월	1,140	-	공탁금 자료 현황표

* 조사 시기 기준 총 누적 인원(연인원)

** 동원 후 탈출이나 전근, 감원 등 이유로 남은 인원(실제 노역에 투입한 가동 인원)

총 누적 인원과 실제 동원 인원을 모두 기재한 자료도 있으나 일부 인원만 기재한 자료도 있다. 사도광산 조선인 동원 규모는 확정하기 어려우며, 향후 자료 발굴 성과에 따라 변할 것으로 보인다.

〈표 1〉에서 3번과 4번을 보면, 총 누적 인원의 변동이 2명에 불과하다. 이는 1942년 하반기에 조선인 동원 실적이 없다는 의미가 된다. 6번은 1944년 이후 증가분 514명을 의미한다. 총 누적 인원과 현재 동원 인원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를 4번의 총 누적 인원(1,519명)에 합산하면 1,168명이 되고, 현재 동원 인원 584명에 합산하면 1,168명이 된다.¹¹⁾

8번은 연구자(익명)의 추정치로서 보완이 필요한 수치라 생각한다. 연구자는 6번의 ‘1,005+514=1,519’

10) 히라이는 ‘514명의 증가로 조선인은 압도적인 노동자였다’고 표현했다. 히라이, 앞의 책, 846쪽

11) 1,168명은 1949년 공탁 당시 인원 1,140명에 근사치가 된다.

의 연평균치(1942.3~1944.3) 434명을 산출하고 이를 1942~1943년 등 2년치 868명으로 상정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2,379명을 추산했다.¹²⁾ 그러나 1942년 하반기의 동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무리한 추산이라고 생각한다. 9번은 일부 채권자의 인원수이다.

조선인들은 시모야마노가미마치(下山之神町)의 야마노가미(山之神) 사택, 신고로마치(新五郎町)의 제1상애료, 스와쵸(諏訪町)의 제3상애료, 지스케마치(治助町)¹³⁾의 제4상애료 등 총 4개소의 합숙소(일명 함바. 飯場)·사택에서 생활했다.¹⁴⁾ <그림 3>의 식당은 제1상애료에 딸린 식당이다.¹⁵⁾

조선인들은 매일 합숙소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갱구까지 거친 길을 1시간 반 동안 걸어서 다녔다. 평탄하지 않고 거친 산길을 오르내린 대가는 부상과 진폐 후유증이었다.



<그림 3> 조선인 합숙소(제1 상애료) 식당 자리(2019.5.13촬영)

미쓰비시광업과 도쿄광산감독국, 그리고 특별고등경찰과 협화회는 사도광산의 조선인을 철저히 감시하고 단속했다. 그러나 조선인은 굴종하지 않았다. 1943년 6월, 사도광산측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1942년 3월 기준으로 동원한 1,005명의 조선인 가운데 148명이 탈출했다.¹⁶⁾

사도광산은 니가타항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어서 지역민의 도움이 없이는 탈출이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조선인은 탈출을 멈추지 않았다. 1940년 2월~1942년 3월까지 탈출자 148명은 사도광산이 동원한 조선인의 14.7%에 달했다.

일본의 국가총동원 체제기(1938~1945)에 끌려온 조선인은 다양한 형태로 저항했다. 수백 명 단위로 적

12) 『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者+新史料』, 強制動員ZOOM講座 발표문, 2021.10.23, 6~7쪽

13) 사도시에는 지스케마치(治助町)라는 지명을 찾을 수 없고, 아이카와에 지스케마치(次助町)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선행연구의 착오로 보인다. 허광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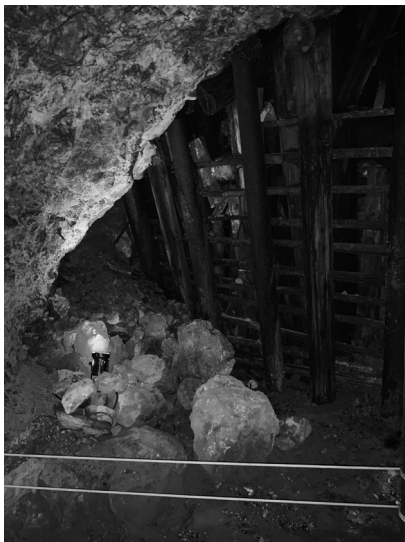
14) 平和教育研究委員会 編, 『新潟縣における韓国・朝鮮人の足跡をたどる』, 2010, 6쪽

15) 아사히 신문기사(그림 15)에 따르면 이 외에 금강료가 있었다고 하는데, 1943년 사도광산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강료는 일부 조선인을 특별 교육시키는 장소였으므로 상시적으로 운영한 숙소로 보기 어렵다.

16) 본 발표문 3장 1절 참조

극 봉기하기도 했고, 파업과 태업을 일으키기도 했다. 일본의 노동현장에서 파업과 태업으로 맞선 이들은 10만 명이 넘었다. 사도광산에서도 파업 사례가 있었다. 당국은 ‘불온한 행동’이라 표현했다.

일본 내무성 경보국의 『특고월보(特高月報)』에 따르면, 1940년 2월 17일, 신보료(新保寮)¹⁷⁾ 소속 최재만(崔在万)을 대표로 한 40명의 조선인이 ‘불온한 행동’을 보였으나 당일 해결(?)했다. 두 번째 투쟁 사례는 1940년 4월 11일 97명이 일으킨 파업이었다. 이 사건은 4월 13일에 끝났는데, 경찰이 개입해서 주모자 3명은 조선으로 송환했다. ‘1942.4.29. 미쓰비시 사도광업소 소속 조선인 노무자 3명이 경관에 연행되자 동료 160명이 사무소로 난입해 항의하다가 8명이 체포’되었다는 자료도 있다.¹⁸⁾ 3건 가운데 2건은 경찰이 개입했다.



〈그림 4〉 천정에서 벽에서 떨어지는 광석들, 위험한 현장(2019.5.13. 촬영)



〈그림 5〉 구치소 자리(조선인 사택 자리로 추정)

3. 자료에 나타난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동 실태

1) 동원주체(일본 정부, 기업)가 생산한 자료

사도광산에 조선인을 동원했던 주체는 일본 정부와 기업(미쓰비시 사도광업소)이다. 이 가운데 먼저 일본 정부가 남긴 자료를 살펴보면, 공탁금 관련 기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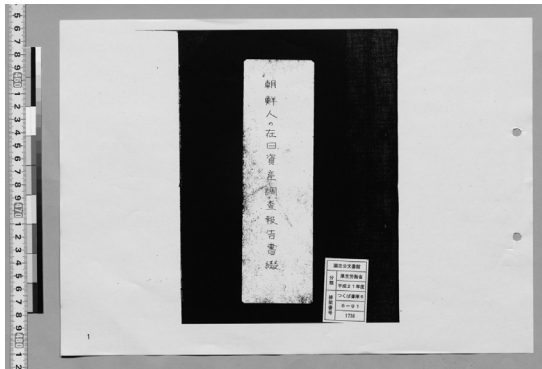
17) 조선인 숙소(寮)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18) 内務省 警保局, 『特高月報』1940년 3월분, 4월분; 張明秀, 「新潟県在日朝鮮人関係年表」, 『新潟近代史研究』3, 1982, 122~123쪽; 姜徹, 『在日朝鮮人史年表』, 雄山閣, 1983, 19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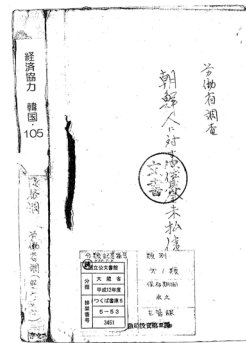
• 공탁금 관련 기록

조선인 공탁금 관련 자료는 일본 패전 후 일본 정부가 일본에 동원했던 조선인 귀국 과정에서 미수금 지급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이다. 당시 일본 기업은 귀국하는 조선인들에게 임금, 강제저금, 가족송금, 후생연금, 보험금, 퇴직수당, 조위금, 각종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 정부와 당시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국군사령부(GHQ)는 1946년 3월 도쿄의 일본은행에 관리계정을 만들고 기업들에게 미수금을 입금하도록 했다. 또한 8월에는 사법성이 「조선인노무자 등에 대한 미불금 등의 공탁에 관한 건」을 제시해 공탁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치에 따라 1946년부터 1994년까지 공탁을 실시했다.¹⁹⁾

일본 국립공문서관 쓰쿠바(筑波)분관에는 「조선인의 재일자산조사보고철 -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결과」와 「경제협력 한국·105·조선인에 대한 임금미불채무조」라는 제목의 자료가 있다. 두 자료 모두 인원수(1,140명)와 공탁금액(231,059.59엔)에 불과해 인적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²⁰⁾



〈그림 6〉 조선인의 재일자산조사보고철 표지



〈그림 7〉 경제협력 한국·105·조선인에 대한 임금미불채무조 표지

「조선인의 재일자산조사보고철 -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결과」는 「조선인의 재일자산조사보고서철」에 편철된 20건의 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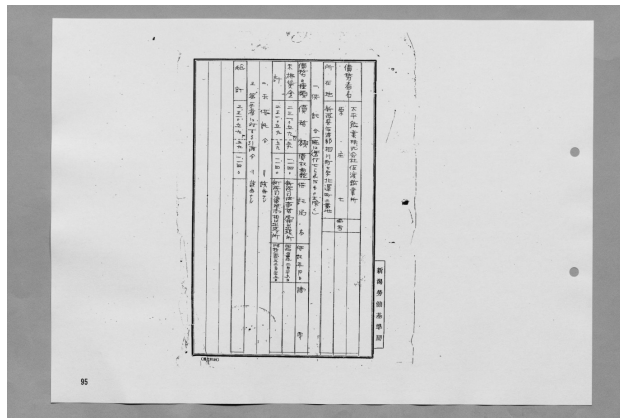
「조선인의 재일자산조사보고서철」은 자료의 성격을 기준으로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전반부의 총 405쪽(표지 포함 407쪽)은 문서명이 전보안(電報案)으로 되어 있는데 홋카이도를 비롯한 36개 도도부현 별로 조사해 노동성 기준국 급여과장 앞으로 보낸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 결과」이고, 나머지 279쪽 분량은 1945년 패전 후 조선인의 미불임금채무 등에 대한 조사와 공탁에 관해 연합국군최고사령부(GHQ/SCAP)와 법무성·대장성·노동성·대일본산업보국회(大日本産業報國會) 및 각 도도부현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이다. 이 가운데 사도광산의 미불금 기록은 전보안에 수록된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

19) 상세한 내용은 최영호 외, 『강제동원을 말한다 - 일제강점기 조선인 피징용 노무자 미수금 문제』, 도서출판 선인, 2015 참조

20)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정혜경, 「일제말기 조선인노무자 공탁금 자료, 세 가지」(『강제동원을 말한다 - 일제강점기 조선인 피징용 노무자 미수금 문제』, 도서출판 선인, 2015) 참조

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결과」에 편철되어 있다. 수록 정보는 다음과 같다.

문서철	기업명	작업장명	현	군	정/촌	번지	공탁/채종류	공탁/채무액	공탁/채무자수	공탁/공탁국명	공탁연월일	공탁(계)/금액	공탁(계)/인원
자산철 095	太平鑛業(주)	佐渡鑛業所	新潟縣	佐渡郡	相川町	大字北澤町2번지	미불임금	231,059.59	1,140	新潟 사법사무국 相川출장소	1949.2.25	231,059.59	1,140



〈그림 8〉사도광산 해당 부분

「경제협력 한국·105·조선인에 대한 임금미불채무조」는 대장성 국제금융국이 작성한 문서철이다. 일본 국립공문서관 쓰쿠바 분관 소장 자료이다. 사도광산과 관련한 공탁기록은 한 줄에 불과하다. 1,140명의 미불임금을 공탁했음을 알 수 있다.

기업명	채권자수	사업장	도부현	공탁처	채권자수	채무종류	수록면
大平鉱業 ²¹⁾	1522		岩手	盛岡供託局花巻出張所	212	保管中の有価証券/賃金他未払金	79
		尾去沢	秋田	秋田司法事務局大館出張所	170	公傷死亡者弔慰金/公傷死亡者香典/退職慰勞金/賃金補給金/厚生年金脱退手当金/貯金	85
		佐渡鉱業所	新潟	新潟司法事務局相川出張所	1,140	未払賃金	131

21) 미쓰비시광업은 1950년에 미쓰비시광업과 다이헤이(大平)광업으로 분리되었다가 다이헤이광업은 1952년에 미쓰비시금속광업으로 회사명을 변경한 후 1973년에 다시 미쓰비시금속으로 변경했다. 미쓰비시광업은 1973년에 미쓰비시광업시멘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두 회사는 1990년에 미쓰비시머티리얼로 통합되었다.

神奈川	富士重工業(株)	近藤多喜全	53	25227	72	24.12.20 横濱地方検察局
〃	味の素 川崎工場	浦崎全	10	1923	80	27.1.14 横濱地方検察局
〃	日東通運(鶴見店)	郵便部全	14	240	00	23.2.14 〃
〃	新日本鐵道	浦崎全	45	12,181	51	横濱地方検察局
〃	馬場建設(株)	砂科	7	5,857	94	27.6.1 (横濱地方検察局)
	計		63	67,691	03	横濱地方検察局
新潟	大井物産(新潟支社)	木北俊全	1140	231,059	57	24.2.25 新潟地方検察局 (新潟市検察部)
〃	新潟通運(新潟支社)	藤田幸全・脱退 下全	22	337	43	23.2.17 新潟地方検察局
〃	日本通運(新潟支社)三井物産	脱退通運通限全	78	986	09	23.2.20 〃
〃	〃	通運通運通限全	23	78	86	〃
〃	〃	三井物産通運全	94	2,577	96	〃
〃	〃	国民物産通運全	27	670	81	〃

〈그림 9〉사도광산 해당 부분

두 건의 공탁기록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최소 1,140명의 조선인을 동원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들의 급여와 저축, 각종 보험금을 본인에게 지불하지 않고 공탁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 공탁기록은 개인별 정보가 없어서 개별성도 확인할 수 없다.²²⁾

• 기업 생산 자료

미쓰비시광업 사도광업소가 생산한 자료는 현재 2건 존재하고 있다. 1건은 1940년 사도광업소가 관변단체인 (사)일본광산협회에 제출한 보고서(반도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보고)이다. 사도광산을 비롯한 여러 광산이 제출한 보고서이다. 재일사학자 박경식이 편찬한 『조선문제자료총서』2권(1981년)에 수록되어 있다. 목차는 모든 광산이 동일하며, 사도광산의 해당 내용은 총 7쪽이다.

목 차

- (1) 지도훈육시설에 관한 사항
- (2) 대우에 관한 사항
- (3) 임금 및 저금 상황
- (4) 분쟁, 쟁의를 일으킬 경우 기타 원인 및 조치
- (5) 불량노무자에 대한 취급
- (6) 반도인이 어떠한 작업에 적합한지에 대한 감상

22) 일본의 활동가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가 2021년 11월에 이 자료를 근거로 니가타지방법무국에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이 내용 외의 자료는 입수하지 못했다.

총 6개항의 목차 가운데 첫 번째 항의 세부 내용은 가동상황(7월분)이다. 이에 따르면, 1940년 7월 현재 동원한 조선인은 332명인데 월 평균 28일간 일을 했다.

분쟁의 원인을 ‘일부 노무자의 오해로 인한 우발적 사고’로 평가하고 구체적으로 ‘언어 불통으로 인한 오해’ ‘이해도 부족’ ‘동원 과정에서 노무과원의 불찰로 노무 조건에 대한 오해’ ‘불량분자의 선동에 편승한 반도인 특유의 교활성 부화뇌동성’으로 기재했다.

(一) 一七 佐 渡 嶺 山

指導員施設に関する事項

1 内 務 組 織 及 方 法

(イ) 若山に際し内地人代表者等の出席並に食料等により支拂せしむ。

(ロ) 山神社参拜の上故郷に對し無事若山報告式を舉行、敬神組の觀念を涵養す。

(ハ) 内務協同組の必要、日常生活の改善、向上等に關し懇切に説明指導し内地的生活に誘導す。

(ニ) 作業用品取、扱並に就業に關し、親心を以て指導せしむる指導員並指導内地人勞務者の教育を爲す。

(ホ) 新潟縣内鮮協和會佐渡支部に入會せしむ。

(ヘ) 指導學校を設け三ヶ月間内地語の教育並教練を行ふ。

2 作業及保安に關する講習

(イ) 指導期間中屢々講習會を開催し、保安意識の徹底を計る外、就業前係員より種々操業上の注意を與へ、國民體操等を指導す。

(ロ) 特に就業場を設けて一組數名に分ち、内務語を能くする半島人一名宛を加へ之に古參勞務者を選定、配屬し、直接或全指導に當らしむ。

3 操 業 成 績 (七月分)

操 業 人 員	操 業 十 日 以 内	二十 日 以 内	二十 一 日 以 上	最 高	最 低	操 業 延 人 員	均 一 日 當 平 操 動 日 數
三三二人	二人	二人	三三八人	二十九日	四日	九二四四人	二八日

4 衛生思想の普及

種々施設の完備を図るは勿論、機會ある毎に衛生講習指導作業等を實施し、衛生觀念の普及徹底に努むれど、半島人特有の不潔の習俗は徹

〈그림 10〉1940년 보고서 첫 장

1943년 보고서는 1943년 6월 7일, 미쓰비시광업(주) 사도광산 측이 감독기관인 도쿄광산감독국과 대일본산업보국회, 도쿄지방광산부회에 제출한 보고서(문서번호 855호)이다. 「조선인노무관리연구협의회개최요강」과 보고서 등 두 종류의 자료인데, 보고서의 제목은 「사도광업소반도노무관리에 대하여(佐渡鑛業所半島勞務管理ニ就テ)」이다.

자료는 23쪽인데, 이 가운데 「사도광업소반도노무관리에 대하여」는 19쪽이다. 1940년에 비해 보고서 분량과 내용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나가사와 시게루(長澤秀)가 편찬한 『전시하 조선인중국인연합군포로 강제연행자료집 - 석탄통제회극비문서』2권(1992년)에 수록되어 있다. 나가사와 시게루는 「사도광업소반도노무관리에 대하여」를 인쇄체로 전환해 『在日朝鮮人史研究』12호(1983년)에 수록했다.

목 차	3. 임금지불 및 계산 방법
1. 관리방침	(1) 임금 규정
(1) 일반적 취급 방안	(2) 지불
(2) 대우	(3) 가동장려방법
(3) 도망 방지	4. 복리후생시설의 개요
2. 관리 현황	(1) 생활보조
(1) 이입수 및 이입 후 감원 실상	(2) 위생
(2) 수용상황 및 가동상황	(3) 협화회
(3) 직종별 인원	(4) 기타
(4) 저급 및 송급 상황	5. 급여규정(식량 등)에 관한 문제
(5) 훈육	6. 계약기간갱신의 유효 대책

제2장을 통해 직종별 현황을 알 수 있다. “반도노무자 중 대부분을 정하는 갱내부”라는 점을 명시했고, 도표를 통해 직종별 인원 현황을 제시했다. <표 2>에 따르면, 일본인은 잡부나 기타도 많지만 내 운전부나 공작부, 제광부가 다수이다. 주로 제련을 하거나 기계를 작동했다.²³⁾ 이에 반해 조선인은 착암부와 운반부, 외운반부 등 갱내 작업에 투입되었다. 위험하고도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 현장이었다. 『佐渡鑛山史 稿本』를 집필한 히라이도 일본 패전 후 사도광산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조선노동자는 거의 전부가 갱내관계작업에 종사”했는데, “모두 귀국해버려 갱내 작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고 기술했다.²⁴⁾

<표 2> 민족별 직종 현황(1943년 6월 기준)(단위 : 명/%)²⁵⁾

구분	일본인	조선인	합계(명)	일본인 1인에 대한 비율
착암부(鑿巖夫)	27(18.0)	123(82.0)	150	4.5
지주부(支柱夫)	39(41.1)	56(58.9)	95	1.4
운반부	80(21.4)	294(78.6)	374	3.6
내 운전부	19(70.4)	8(29.6)	27	0.4
외 운반부	17(25.8)	49(74.2)	66	2.8
공작부	23(88.5)	3(11.5)	26	0.13
정지부(整地夫)	46(68.7)	21(31.3)	67	0.46
제광부(製鑛夫)	85(81.7)	19(18.3)	104	0.22
잡부	52(82.5)	11(17.5)	63	0.21
기타	321(100)	0	321	
합계	709(54.8)	584(45.2)	1,293	0.82

자료 : 佐渡鑛業所, 「半島勞務管理ニ就テ」(1943년 6월); 平井榮一, 「佐渡鑛山史 稿本」, 1950, 846쪽

23) 広瀬貞三, 「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者(1939~1945)」, 『新潟国際情報大学情報文化学部紀要』[人文科学編]3, 2000, 10쪽. 히로세는 일본인이 100%에 달하는 기타 직종을 선광장으로 추정했다.

24) 平井榮一, 『佐渡鑛山史 稿本』, 1950, 848쪽(익명의 연구자 제보를 받아 일제피해자지원재단이 입수한 신규 자료)

25) 굵은 글자 : 인용자 표시

사도광산은 1943년 5월 현재 총 1,005명의 조선인 가운데 584명을 노역에 투입했다. 1,005명의 동원자 가운데 주목할 점은 전출자와 감원자, 그리고 148명에 달했던 탈출자, 1%에 달했던 사망자이다.

1943년의 사망율 1%를 같은 시기 일본지역 탄광산 노무자의 사망률과 비교해보면 높은 편이다. 일본 전 지역 조선인 노무자 사망률은 0.9%(1939.10~1942.10 기준)이고, 후쿠오카 관내 조선인 노무자 사망률은 0.6%(1944년 1월 기준)이다.

전출과 감원은 일본 당국의 금광산조정령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당국의 금광업정비방침은 '특정중요광물의 급속증산에 대처하고 동·구리·아연·수은·철·망간 등 중요광물의 생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략> 금광업의 정리를 단행'한 정책이었다. 조선인 노무자의 배치전환에 대해서는 취급요령에서 '기간 만료가 가까운 자는 가능한 한 기간을 연장하여 전환취직을 지도'하고 '협화회를 통해 협력하도록'했다. 1942년 11월 30일 상공성이 발표한 「금광산조정령」에 의한 금광산의 보·휴·폐광과 '설비 및 노동력의 배치전환 등'에 관한 내시(內示) 및 1943년 1월 각의결정 '금광업정비에 관한 건', 4월 1일자 「금광산정비령」 실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조치에 따라 사도광산도 금은광을 휴광하고 구리 채굴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전출과 감원을 실시했다.²⁶⁾

(第一表)

移入數及減員數

五月底日現在

計	一 七 三	一 六 一〇	一 六 六	一 五 二	一 五 五	一 五 二	年 移 月 入	
	青 陽	論 山	燕 岐	扶 余	公 州	公 余	移 入 數	
(100%)	1005	77	127	153	300	248	98	
	2°	2°	2°	3°	3°	3°	期 間 雇 傭	
(0.9%)	10	1	2	3	3	1	死 亡	
(14.2%)	148	6	12	19	51	46	14	逃 走
(0.5%)	6		1	2	1		2	公 傷
(2.9%)	30	2		4	6	10	8	私 傷
(2.4%)	25		1	3	3	12	6	不 良
(7.1%)	72		5	5	31	29	2	歸 還
(12.9%)	130			24	74	31	1	出 身
(41.5%)	421	9	21	60	166	131	34	計
(58.1%)	584	70	106	93	134	117	64	現 在
			濟		濟	濟	濟	手 續 就
							否	

〈그림 11〉 1943년 조선인 동원 현황(「半島勞務管理ニ就テ」)

26) 감원보다는 전출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피해조사 명부 148명 가운데 확인이 가능한 142명의 동원시기를 살펴보면, 1943년에 귀환한 조선인은 3명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 사도광산의 인원 감축 후에도 많은 광부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다른 작업장으로 전근되었다고 판단된다.

〈표 3〉 사도광산이 동원한 조선인 광부(1943년 5월 기준)(단위 : 명/%)

내용/연월	1940년 2월	1940년 5월	1940년 12월	1941년 6월	1941년 10월	1942년 3월	합계(%)
출신군	논산	논산, 부여, 공주	논산, 부여	논산, 부여, 연기	청양, 논산	청양	-
동원수	98	248	300	153	127	79	1,005명
고용기간(연)	3	3	3	2	2	2	-
사망	1	3	0	3	2	1	10(1.0)
도주	14	46	51	19	12	6	148(14.7)
공상 송환	2	0	1	2	1	0	6(0.6)
사증(私症) 송환	8	10	6	4	0	2	30(3.0)
불량 송환	6	12	3	3	1	0	25(2.5)
일시 귀국	2	29	31	5	5	0	72(7.2)
전출	1	31	74	24	0	0	130(12.9)
감원총수	34	131	166	60	21	9	421(41.9)
현재수	64	117	134	93	106	70	584(58.1)

〈표 3〉 한글로 작성한 조선인 동원 현황(*굵은 글자 : 인용자)

두 보고서를 통해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광산 측의 인식을 잘 알 수 있다. 1940년과 1943년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용어는 ‘훈육’이다. 조선인 노무자의 탈출 원인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찾을 수 없다. 1943년 보고서의 차이는 ‘자유방임과 부화뇌동성’과 함께 ‘계획적 도망자’를 추가한 것이다. 특히 조선인이 ‘도일 이전부터 탈출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철저한 단속 강화’와 함께 ‘도망 중개자’에 주목하고 있다. 도망 중개자란 현지 주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도는 섬이라는 지형으로 인해 현지 주민의 도움 없이는 탈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1943년 보고서는 탈출 원인 외에도 조선인을 폄하하는 내용으로 일관했다. ‘위생’ 항목에서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다. 특히 악습자는 금강료에 별도 수용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도 수립했다.

移入時ハ輔導學級(上中下ノ三學級ニ分テ上級ハ國民學校四年修了程度以上ノ國語理解力アル者、中級ハ稍々國語ヲ理解スル者、初級ハ全然國語ヲ理解シ得ザル者トス)ヲ設ケ三ヶ月間國語教育ニ重點ヲ置キ併セテ規律訓練、禮儀作法等內地人生活ヘノ指導ニ努ムル外該期間中屢々講習會ヲ開催シ保安意識ノ徹底ヲ計ル外、就職前係員ヨリ種々操業上ノ注意ヲ與ヘ國民體操等ヲ指導ス 尙右ノ外惡習者ヲ一定場所(金剛塾)ニ收容シ特別訓育ヲ施ス 現在ハ各々收容個所別ニ教練ヲ實施シ規律訓練ニ資ス	(內) 訓 育
--	---------

〈그림 12〉 1943년 보고서 중

2) 명부에 나타난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동 실태

사도광산 관련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작성한 명부는 현존하지 않는다. 현재 발굴한 사도광산 관련 명부는 조선인 연초 배급명부, 조선총독부 지정연령자연명부 등 2종이다.²⁷⁾

일본 국가총동원시기(1938~1945)에 미쓰비시광업(주)은 46개소의 탄광과 광산에 다수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다. 그러나 당시 또는 일본 패전 직후 일본 정부 및 GHQ의 지령에 따라 기업이 작성·제출했던 명부는 일부에 그쳤다. 특히 니가타(新潟)현 사도(佐渡)시 소재 미쓰비시광업(주) 사도광산의 경우에는 현재 일본 정부와 기업이 생산한 명부는 전혀 없다.

이 점에서 현재 사도시사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관련 명부 2종(조선인 연초 배급명부, 조선총독부 지정연령자연명부)은 매우 중요하다. 이 명부는 공개 자료이지만 그간 소재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다. 알려지게 된 것은 2019년 일제피해자지원재단 학술연구용역(일본지역 탄광·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 미쓰비시(三菱)광업(주) 사도(佐渡)광산을 중심으로 -) 보고서를 통해서였다. 연구를 수행(정혜경)하는 과정에서 사토 타이지(佐藤泰治)를 통해 제공(허광무의 도움)받았다. 그러나 연구에 활용한 적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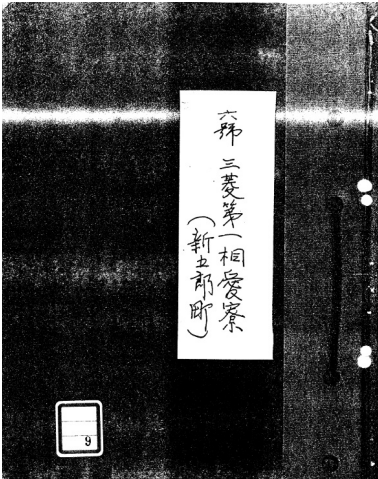
‘조선총독부 작성 지정연령자 연명부’는 바로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을 일본에 동원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명부라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 현재 일본 정부나 우익, 그리고 국내 역사부정론자들이 동원에서 일본 국가 권력의 개입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이 명부는 바로 조선총독부가 조선인 강제동원을 직접 주관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지정연령자 연명부’라는 형식의 명부가 그간 발굴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도 이 자료가 갖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으며, 다른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 명부의 추가 발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조선인 연초 배급명부’ 또한 담배가 작업 현장에서 일본 당국이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필수 품목이었으므로 사도광업소 외 다른 작업장에서도 명부 발굴 가능성이 있다.

(1) 조선인 연초 배급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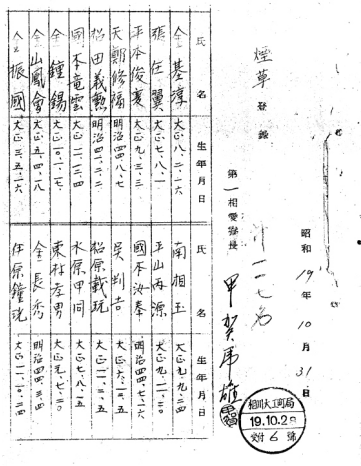
조선인 연초 배급명부는 사도시 사도박물관이 1980년초에 수집한 총 3개소의 료(寮, 노무자 숙소)에 거주한 조선인 명단(조선인 연초 배급명부)이다. 조선인 숙소와 가까운 곳에 있던 전당포 겸 담배가게의 구가(舊家)가 소각하기 직전의 자료 가운데에서 조선인 노동자의 명부가 발견되어 1943년 및 1945년에 기숙사에 있었던 417명의 조선인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 수 있게 되었다.²⁸⁾ * 부록 참조

27) 상세한 내용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일본지역 탄광·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 미쓰비시광업(주) 사도광산을 중심으로(책임연구원 : 정혜경)』,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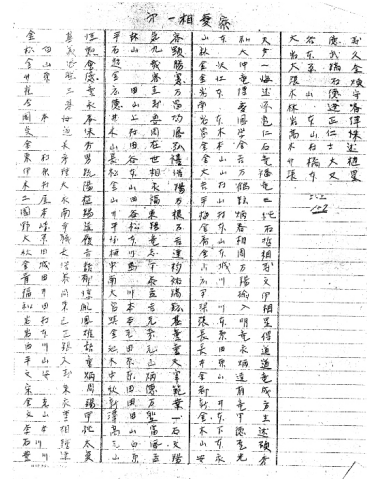
28) 신문기사(그림 15)에서 혼마관장은 조선인 료를 상애로 외에 금강료(특별교육장소)를 추가해 4개소라고 파악했다.



〈그림 13〉 조선인 연초배급명부 표지



〈그림 14〉 상애료 1-A의 첫 페이지



〈그림 15〉 상애료 1-B

조선인 연초배급명부의 발굴 시기는 1980년으로 추정한다. 1991년 11월 14일자 아사히(朝日)신문 기사에 ‘10년전 쯤’ 발견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1991년 11월 보도 당시, 현지 연구자들은 한국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확인할 수 없다.

조선인 연초배급명부는 회사 측에서 광부들에게 담배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명부이다. 담배는 강제동원 현장에서 당국이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필수 품목이었다. 여성이나 어린아이에게도 지급했다.

조선인 연초배급명부의 총 수록 인원은 466명(일본인 3명 포함)이다. 조선인 연초배급명부는 두 종류인데, 제1상애료A 형식은 이름과 생년월일(서력, 연호), 이동 관련 정보, 작성 일자를 기재한 명부이고 제1상애료B 형식(107명)은 이름만 기재한 명부이다. 45명은 A형식과 중복된다. 제3상애료 명부에서도 중복자가 1명이 있다. 그러므로 조선인 463명 가운데 중복자를 제외한 조선인은 417명이다.

총 수록 인원 가운데 353명의 작성일 기준 나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이는 16~48세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데, 평균 나이는 29세이다.

417명 가운데 7명은 일시귀선증명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간 후 복귀하지 않고 탈출했다. 모두 제3상애료에 수용되었던 조선인들이다.

또한 417명 가운데 5명은 ‘軍緊急工作隊’라는 이름으로 다른 지역의 작업장으로 전근조치했다. 명부에서 확



〈그림 16〉 아사히신문 1991년 11월 14일자 기사

인한 전근 광부는 총 5명(金海大吾, 金山丁鳳, 金原振浩, 文玉男, 李周榮)이다. 이들은 1945년 4월과 6월 20일에 전근되었다. 지역사(『佐渡相川の歴史 - 通史編, 近現代』)에서는 1945년 8월에 이동했다고 기술했다. 지역사 기술의 오류로 보인다.

명부에서는 전근 지역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역사 기술에 따르면, 제1차 정신대(전국광산특별정신대) 189명과 제2차 219명 등 총 408명을 각각 사이타마와 후쿠시마현으로 파견해 지하공장 건설에 동원했다.²⁹⁾ 사이타마로 간 제1차 정신대원들은 군의 지하시설을 조성했고, 히타치(日立)항공기(株) 히가시마쓰야마(東松山)공장 건설 공사장과 나카노지마(中島)비행기회사 요시미(吉見) 지하공장 공사장에 동원했다. 후쿠시마현으로 간 제2차 정신대원은 약 3만 3천 평방미터의 내탄지하공장 건설 공사(信夫山)에 동원했다. 나카노지마비행기회사가 월 300대의 엔진을 생산하고자 만든 공장이었다.

당국이 군사시설로 전근을 단행한 이유는 인원 조정과 함께 일본 전역에서 구축 중이던 지하공장의 인력 배분을 위한 조치였다. 일본은 1944년 11월 미군의 대대적인 공습을 맞아 1945년초부터 비행기공장 등 필수 군수공장의 지하화에 착수했다. 일본 당국은 1945년 2월 23일에 ‘공장긴급소개요강’을 각의결정했다. 1944년까지 내린 각의결정의 골자는 군수공장 주변의 주택을 철거해 주택에 붙은 불이 공장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1945년에는 야산에 지하공장을 마련하거나 식민지 조선으로 군수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이었다. 당국의 정책으로 항공기 등 주요 병기공장을 산속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일본에 조성한 지하공장은 2천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이타마와 후쿠시마로 전근되었던 조선인 광부들은 8월 26일(후쿠시마조)과 8월 27~28일 양일간 모두 319명이 사도로 돌아왔다. 본래 파견자는 408명이었는데, 이 사이에 89명이 행방불명이 되었다. 사이타마와 후쿠시마 현지에서 행방불명이 되었는지, 사도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방불명인지는 알 수 없다.³⁰⁾

(2) 조선총독부 작성 지정연령자 연명부

일본 정부와 기업이 생산한 명부는 다양한 종류이지만 ‘지정연령자 연명부’는 발굴된 적이 없는 형식의 명부이다.

조선총독부 작성 지정연령자 연명부는 사도시 사도박물관 소장 자료이다. 그러나 사도시 사도박물관이 조선총독부 작성 지정연령자 연명부를 수집한 시기와 과정은 알 수 없다.

총 4장의 사본에 번호 9751~9850까지 총 10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본적지, 거주 장소, 처리, 통(通)번호 등 총 6개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작성 시기와 작성 부서는 알 수 없다. 표지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자료 중 일부의 사본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 ‘지정연령자연명부’가 명시된 양식에 수기(手記)로 기재했다.

29) 相川町史編纂委員會, 『佐渡相川の歴史 - 通史編, 近現代』, 682~683쪽

30) 相川町史編纂委員會, 『佐渡相川の歴史 - 通史編, 近現代』, 683쪽

〈그림 17〉 조선총독부 작성 지정연령자연명부의 사본 중 일부

사본의 상태가 불량해 이름의 일부만 확인할 수 있으나 본적지가 함남과 경북(영덕, 봉화, 청송, 의성, 영일군), 강원(울진군)이라는 점과 1901~1923년 출생자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 경북과 강원도 출신자이다. 그러나 주소지를 기준으로 보면 강원(현재 경북)과 충북 음성 두 지역의 명부임을 알 수 있다. 히로세 논문에서는 사도광산 동원 조선인의 출신 지역을 충남과 충북으로 파악했으나 이 명부를 통해 다양한 지역에서 동원했음을 알 수 있다. 함남 갑산 출신자가 있으나 울진군 거주자인 점을 보면, 함남에서 집단적으로 동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명부 중 일부 식별 가능한 이름을 조선인 연호배급 명부와 비교한 결과 52명의 동일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성 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동원 당시 나이는 특정할 수 없다. 양식에 기재된 용어가 ‘지정연령자 연명부’라는 점을 볼 때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한 명부로 보인다. 조선총독부 작성 지정연령자 연명부는 바로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을 일본에 동원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명부라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 사도광업소의 사례를 통해 기타 다른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성격의 명부를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향후 적극적인 명부 발굴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발굴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3) 피해자의 기록을 통해 본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동 실태

‘강제연행의 문서가 있다면 내놓으라!’ 일본군위안부피해 문제를 둘러싼 공박에서 늘 빠지지 않는 가해자 측의 수사이다. 그들은 ‘실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피해자는 공적 문서를 남길 수 없다’는 점을 약점으로 삼고 공격의 빌미로 활용한다. 이러한 전략은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이 해오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나치가 홀로코스트를 실행했다면 히틀러의 명령이 남긴 문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문서는 한 통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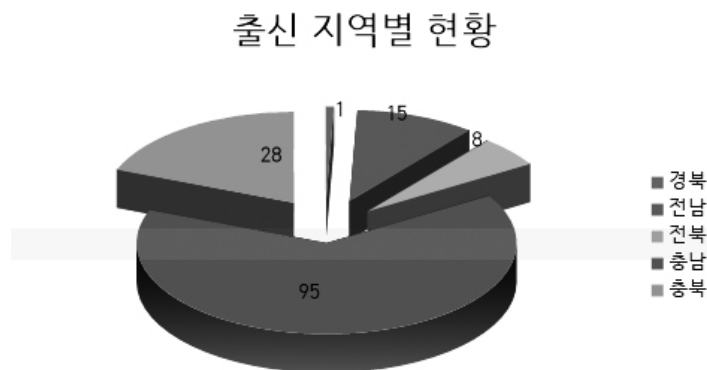
피해자는 공적 문서를 남길 수는 없으나 기록을 남길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한국 정부가 생산한 기록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험자의 구술이다.

(1) 위원회 피해조사 명부

위원회는 2005년 2월부터 15개월간 피해신고를 받아 2012년까지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 판정한 218,639건 가운데, 사도광산 동원 피해자로 추정된 규모는 148명(여성 1명 포함)이다. 이 명부는 2015년 위원회가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과 관련해 보도자료 작성(작성자 : 정혜경)을 위해 추출해 보도자료에 첨부했던 명부이다. 이름과 접수번호, 중복 동원(전근) 내용만 담았다. 동원지역은 피해의결서의 동원지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판정 당시에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미상의 작업장’이나 ‘니가타현 소재 불상의 광산’으로 판정한 내용을 대상으로 작업장 주소를 확인하거나 동행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발표자가 추출했기 때문이다.

2019년에 148명을 대상으로 일정시피징병징용자명부를 통해 동일 인물(36명)을 추출해 국내 현지조사 및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일제피해자지원재단이 행정안전부 과거사업무지원단으로부터 제공한 자료를 통해 일부 피해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생년월일 등 인적 정보를 일부만 제공받았으므로 상세한 분석은 할 수 없었다.

■출신 지역 : 148건 가운데 본적지를 파악할 수 없는 1건을 제외한 147명의 출신 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다.



147명의 출신 지역은 충남과 충북, 전남과 전북, 경북 등 5개도이며 이 가운데 다수는 충남이다. 군 단위로 살펴보면, 공주(4명), 논산(55명), 대덕(1명), 청양(12명), 부여(7명), 서천(1명), 연기군(5명) 등 7개 군이다.

■동원 기간 : 148명 가운데 145명의 동원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시기별로 보면, 1938년 7명, 1939년 12명, 1940년 21명, 1941년 32명, 1942년 25명, 1943년 22명, 1944년 22명, 1945년 4명이다. 193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944년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1941년이 가장 많다.

확인이 가능한 142명의 강제동원 종료 시기를 보면, 1941년부터 1946년 1월까지 분포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금광산조정령에 의해 사도광산의 인원 감축이 이루어진 시기에도 귀환자는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지 사망자 1명을 포함해 3명이 1943년에 귀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사도광산의 인원

감축 후에도 많은 광부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다른 작업장으로 전근되었다고 판단된다.

■ 관련 자료 현황 : 위원회 피해조사 명부 수록자 148명 가운데 조선인 연초배급명부에 등재된 동일인은 19명이다. 그 외 일정시피징병징용자명부에서 36명을, 왜정시피징용자명부에서는 5명을 확인했다.

일정시 피징용징병자 명부	왜정시 피징용자 명부
· 수록인원 : 228,724	· 수록인원 : 285,771
· 작성배경 : 제2차 한일회담 준비를 위해 전국 단위로 조사하고 도별로 취합해 제출한 명부로서 1953년 1월 내무부가 최종 취합 합본	· 작성배경 : 제4차 한일회담에 대비하여 1957~1958년에 걸쳐 노동청이 전국 단위로 신고를 받아 도별로 취합한 명부
· 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면리 단위), 동원기간, 동원지, 귀환 및 사망 여부 등 수록. 군인, 군속, 노무자 등 포함	· 내용 : 성명, 동원 당시 연령, 주소(면리 단위), 동원일, 귀환 및 사망 여부, 귀환일 등 수록. 군인, 군속, 노무자 등 포함
· 특징 : 현존하는 最古의 강제동원 명부로서 정부 수립과 6.25전쟁 등 혼란한 시기에 정부가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 ※ '13.6. 주일 한국대사관 신축 이전과정에서 발견된 명부 3종 중 하나	· 특징 : 위원회가 전국 시군구 공무원 약 2천여 명과 합동으로 '06.6.~'08.12.(총 2년6개월)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 211,342명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여 118,520명을 피해자로 확인 '검증-왜정시피징용자명부'로 활용

■ 현지 사망과 후유증 상황 : 148명 가운데 12명이 현지에서 사망했고, 무려 73명이 후유증을 신고했다. 충남 청양군 출신의 유성현은 동원된 후 3개월 만에 갯내 사고로 사망했다. 12명 가운데 9명은 유골을 봉한했다. 12명의 사망자는 148명 가운데 8.1%에 이른다.

후유증 가운데 다수는 진폐증이다. 갯내에서 암석을 다이내마이트로 폭발할 때 산산조각이 난 돌이 먼지가 되어 공기 중에 떠돌게 된다. 먼지는 3~5미크론 정도로 아주 미세해서 눈으로 보면 연기처럼 보일 뿐이다. 연기처럼 보이는 가루는 현미경으로 보면 창처럼 끝이 뾰족하다. 이 분진이 폐를 찌르면서 쌓이면 폐가 딱딱하게 굳어지는데, 이것을 섬유화한다고 한다. 이 상태에서는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이 어려워져서 호흡이 곤란해진다. 이것이 진폐증이다.

1944년에 사도광산 진폐 실태를 조사한 의사(齊藤謙)의 『규폐병의 연구적 시험·보론』에 의하면, 분진의 평균 수치는 착암부가 810cc, 운반부가 360cc, 지주부가 350cc, 갯부가 240cc이다.³¹⁾ <표 2>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직종에 종사한 이들은 주로 조선인이었다. 이 점에 대해 히로세는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기록이라 판단했다.³²⁾

73명 가운데 30명이 진폐증으로, 15명이 폐질환으로 신고했다. 이를 통해 45명이 진폐증을 앓았고, 반수 가까운 광부들이 진폐증의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 기타 내용 : 148명 가운데 11명은 다른 지역으로 전근된 것으로 보인다. 전환배치된 지역은 후쿠시마(4

31) 磯部欣三, 「佐渡金(銀)山の勞働力」, 地方史研究協議會 編, 『佐渡 - 島社會の形成と文化』, 雄山閣, 1977, 62~64쪽

32) 広瀬貞三, 「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者(1939~1945)」, 13쪽

명)와 사이타마현(2명)이 가장 많다. 앞에서 언급한 전국광산특별정신대로 전근한 사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산으로 전근 사례로 볼 수 있다. 148명 가운데, 전근을 신고한 이들은 총 8명이다. 이 가운데 2명(백순기, 김영기)은 ‘사이타마현 소재 닛치쓰(日窒)지치부광산’과 ‘효고현 미쓰비시(三菱)광업(株) 아케노베(明延)광산’이라고 광산 이름을 기억했다. 두 군데 모두 당시 운영했던 광산이었다. 또 다른 1명은 사할린의 탄광으로 기억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현재 연구나 지역사 기술에 포함하지 못한 전근의 사례는 많고, 전근 지역이나 직종도 다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사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 광부의 경험 세계

현재 사도광산의 생존자는 찾을 수 없다. 148명의 위원회 피해조사명부에서 34명의 생존자를 확인할 수 있으나 행안부가 확인할 바에 따르면 생존자는 없다.³³⁾

임태호는 1919년 12월 20일 충남 논산군에서 태어나 1940년 11월 사도에 동원되었다. 1997년 9월 사망할 때까지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시(川崎市)에 살았던 임태호는 1997년 5월 사망하기 직전 길지 않은 구술을 남겼다.

임태호는 1940년 11월 ‘모집’이라는 형태로 젊은 동료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일본 땅을 밟았다. 스무 살의 청년이었다. 좁은 배에는 조선인으로 넘쳐났다. 니가타현 사도섬에 도착하니 산속 오지의 산 정상에 함바(飯場, 노동자숙소)가 있었다. 아이카와(相川)라는 곳이었다. 갈 때는 ‘모집’이라고 해서 ‘자유 모집’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착해서 ‘징용’임을 알았다.

미쓰비시 사도광산 생활이 시작되었다. 함바에서 일하는 곳까지는 걸어서 1시간 반이나 걸렸는데,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오르내리는데 고생스러운 거친 길이였다. 더운 여름날에도 고생스러웠지만 추운 겨울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으므로 일하는 곳에 도착하면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 일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었다.

임태호가 하는 일은 갯내 광석 채굴이었다. 갯내 작업은 죽음을 맞닥트리는 일이었으므로 하루하루가 공포 그 자체였다. 매일 같이 낙반 사고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살아서 이 지하를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을 줄이고 살았다. 사망자에게 인간 대접이라는 것은 없었고, 아무런 조의(弔儀)도 없었다.

임태호는 운이 좋았는지 다행히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도 지하에서 작업 중에 발판이 떨어지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의식을 잃고 정신이 든 곳은 병원이 아니라 함바의 이부자리였다. 허리를 강하게 맞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열흘 정도 누운 채 지냈다. 간신히 일어날 수 있게 되자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했다. 병에 걸려도 이를 이상은 설 수 없는데, 열흘이나 일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쉰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았다. 작업 중에 두 번째 부상을 입어 다시 손을 사용할 수 없게

33) 위원회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구술기록(음성, 영상) 가운데 34명의 구술기록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되자 이대로는 살아서 고향 땅을 밟는 것도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지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히로시마(廣島)로 탈출 후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가와사키에 정착해 조국의 해방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말보다 눈물이 먼저 나왔다.

임태호에게 조국의 해방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받은 모욕적인 경험으로부터 해방이기도 했다. 그는 “전후 반세기 이상이 지났으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본 정부로부터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들은 적이 없다. 죽은 동료들도 지금은 모두 성불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나와 같은 경우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 있는 동안에 성의 있는 진정한 사죄를 받기를 원한다”는 말로 구술을 마쳤다.³⁴⁾

사도광산은 직할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태호는 두 번이나 부상을 입은 와중에도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여러 차례 부상은 임태호에게 탈출의 계기가 되었다. 임태호가 사도광산을 탈출한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탈출은 현지 어부나 주민들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현지민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소장한 기록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148명 가운데 102명은 협화회 수첩이나 사진, 국민노무수첩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소장하고 있다. 충남 논산에 거주하는 유족 가운데 한 사람(김종원 피해자의 아들)도 직업능력신고수첩과 보험영수장을 소장한 주인공이다.

김종원의 유족이 소장한 직업능력신고수첩은 국민징용령(1939년 7월 8일 제정, 칙령 451호)에 근거해 국민징용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법령(국민직업능력신고령) 규정에 의해 발급한 수첩이다. 수첩 소지자는 국민징용 후보자라는 의미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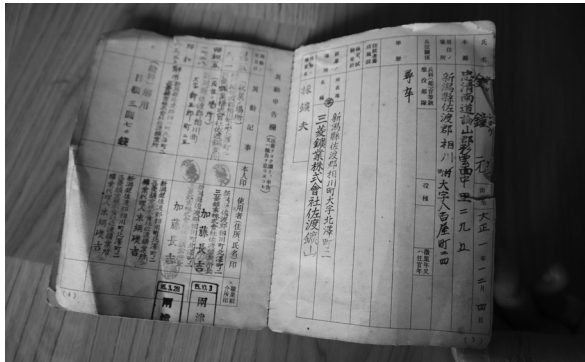
김종원은 1940년 10월 3일 직업능력신고수첩(職業能力申告手帳)을 발부받았다. 입산 시기로 보면 김종원은 ‘할당모집’의 형태로 동원된 경우이다. 수첩에 ‘채광부’로 기재한 점을 통해 김종원이 갯내에서 작업했음을 알 수 있다. 사도광산은 1944년 12월 18일 군수성 지정 관리공장으로 지정되어 전원이 협화회관에 모여 현원징용영장을 받았으나 김종원은 1943년에 귀선했으므로 피징용자가 되지 않았다.

또 다른 자료인 보험료영수장(保險料領收帳)은 보험증서이다. 보험료영수장은 1941년 8월부터 1943년 3월까지 납입한 증서이다. 계약자는 김종원이고 매달 7일에 1엔 20전씩 납입했다. 당시 조선인 노무자의 일반적인 보험료 납입 방식은 원천 공제였다. 자료에는 ‘募集人拂込’이라는 도장이 찍혀있다. 기재 내용을 역면 그대로 이해하면 이 보험료는 모집인이 납입한 셈이 된다. 사도광산이 작성한 자료에 “단체생명보험료는 모두 회사가 부담”한다고 기재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³⁵⁾ 또한 모집인이 보험료를 납입했다는 것은 김종원의

34)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關東編』, 柏書房, 2002, 301~302쪽

35) 平井榮一, 『佐渡鑛山史 稿本』, 1950, 846쪽

임금을 모집인이 관리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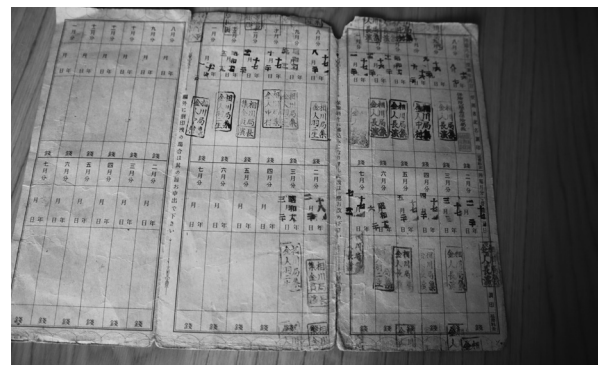
〈그림 27〉 김종원의 직업능력신고수첩 내지



〈그림 28〉 보험료영수장 표지(2019.6.26. 촬영)



〈그림 29〉 김종원의 직업능력신고수첩 표지(2019.6.26.촬영)



〈그림 30〉 보험료영수장 내지

4. 맺음말 - 완전한 역사를 공유하기 위한 길

2021년 12월 28일,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서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 초치를 통해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도 일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사회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문제를 제기하는가. 바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의 내용과 의도가 세계시민이 공유해야 할 가치와 방향성을 훼손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은 인류 전체가 보존하고 보호해야 하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자산이다. 역사의 일면만을 편향되게 보여주려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은 세계유산의 성격과 지향점을 존중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6) 단체생명보험으로 추정. 김종원은 이 외에도 여러 개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1467년부터 1989년까지 운영한 사도광산은 번쩍이는 화려한 금의 역사만 간직하고 있지 않다. 2~3년을 채우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던 일본 중세시대 광부들의 사연. 40대에 진폐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아픔이다. 그리고 조선인 강제동원이라는 사실(事實)이다. 이러한 역사가 바로 반드시 세계시민이 공유해야 할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이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사실의 무게를 느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의 무게를 느끼는 것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사실의 무게는 피해자성의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사실의 무게를 느끼고, 피해자에게 공감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노력. 바로 피해자성을 지키는 길이다. 피해자성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길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 발굴(문헌, 유족을 대상으로 한 구술)과 연구가 필요하다. 광산이라는 직종이 갖는 특성, 진폐증 실태 등 다양한 분야의 학제간 연구도 필요하다.

둘째, 현재 중단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 기능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 사실의 무게를 느끼기 위한 노력은 연구자 개인의 성실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 발표문에서 소개한 148명의 위원회 피해기록은 위원회라는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기관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자료이다. 2015년 위원회 해산 이후 2019년 발표자는 사도광산에 대한 자료를 추가 발굴했으나 이 자료를 놓고 정부가 피해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제한된 위원회 피해신고 기간으로 인해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148명은 <표 1>에서 정리한 총 동원 인원 중 일부일 뿐이다. 현재 중단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 기능을 회복해 피해신고업무를 재개하고, 사도광산의 피해가 낳은 후유증을 조사해야 한다. 현재 진상조사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법안은 국회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셋째, 대응 전략의 수립이다. 최고의 대응 전략은 세계유산위원회 회원국을 비롯한 세계 시민들이 사도광산이라는 현장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다. 그 점에서 사실의 무게를 통한 사실성의 축적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토대 작업이다. 또한 독일의 람펠스베르크 광산 등 유사한 세계유산과 비교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 과정은 정부의 유관기관(외교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동북아역사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과 학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일본 측이 보이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선례(善例)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일본 측이 보이는 한계는 가해국의 모습이기도 하다. 역사의 가해국은 스스로 화해의 길을 걸어가기도 어렵다. 그 길을 이끌어가는 것은 식민지 경험을 가진 피해국인 한국 사회가 할 수 있다. 세계문화유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국내에는 8천 개가 넘는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이 남아 있다.³⁷⁾ 이 가운데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인천 부평의 인천육군조병창이 있다. 인천육군조병창은 일본

37) 정혜경, 『우리 지역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활용 - 방안과 사례』, 도서출판 선인, 2017

식민지 유일의 일본 육군 소속의 무기공장이었고, 평양에 소속 제조소를 운영했다.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조선의 민중들에게 강탈한 낫그릇과 숟가락은 인천육군조병창 주물공장에서 녹여 무기를 만들었고, 이 무기는 중국 침략전쟁에 사용했다. 이제 한국 사회는 이러한 현장을 반전평화를 위한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부평의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 바람직한 좋은 사례로 일본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강제동원 피해는 남측 출신자의 문제만이 아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30%는 북한에 본적을 둔 이들이다. ‘조선총독부 지정연령자연명부’에서도 함남 갑산 출신을 찾을 수 있다. 남북 공동 조사와 연대가 필수적이다.³⁸⁾

38)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남북한 연대 방안에 대해서는 정혜경, 「일제강제동원 진상규명, 남북한의 공동 과제다」(P's Letter 53호, 2018년 4월. <https://cafe.naver.com/gangje#>) 참조

[참고문헌]

內務省 警保局, 『特高月報』1940년 3월분, 4월분

「반도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보고」(1940)(朴慶植, 『朝鮮問題資料叢書』2권, 三一書房, 1981 수록)

「사도광업소반도노무관리에 대하여」(1943.6)(長澤秀, 『戰時下 朝鮮人中國人聯合軍捕虜 強制連行資料集 - 石炭統制會極祕文書』2권, 綠陰書房, 1992. 수록)

平井榮一, 『佐渡鑛山史 稿本』, 1950(익명의 연구자 제보를 통해 일제피해자지원재단이 입수한 신규 자료)

三菱鑛業セメント 株式會社總務部社史編纂室 編, 『三菱鑛業社史』, 1976

地方史研究協議會 編, 『佐渡 - 島社會の形成と文化』, 雄山閣, 1977

姜徹, 『在日朝鮮人史年表』, 雄山閣, 1983

相川町史編纂委員會, 『佐渡相川の歴史 - 通史編, 近現代』, 1995

(주)TEM연구소, 『佐島金山』, (주)GOLDEN佐島, 2001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關東編』, 柏書房, 2002

平和教育研究委員會 編, 『新潟縣における韓国・朝鮮人の足跡をたどる』, 2010

정혜경, 『우리 지역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활용 - 방안과 사례』, 도서출판 선인, 2017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일본지역 탄광·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 미쓰비시광업(주) 사도광산을 중심으로 (책임연구원 : 정혜경)』, 2019

임지현, 『기억전쟁』, 휴머니스트, 2019

정혜경·허광무, 『탐욕의 땅, 미쓰비시 사도광산과 조선인 강제동원』, 도서출판 선인, 2021

張明秀, 「新潟県在日朝鮮人關係年表」, 『新潟近代史研究』3, 1982

広瀬貞三, 「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者 (1939~1945)」, 『新潟国際情報大学情報文化学部紀要』[人文科学編]3, 2000

萩愼一郎, 「鑛山」, 『新體系 日本史2 - 産業技術史』, 山川出版社, 2001

정혜경, 「일제말기 조선인노무자 공탁금 자료, 세 가지」, 『강제동원을 말한다 - 일제강점기 조선인 피징용 노무자 미수금 문제』, 도서출판 선인, 2015

○○○○, 「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者+新史料」, 強制動員ZOOM講座 발표문, 2021.10.23.

<https://cafe.naver.com/gangje#>

새로운 자료 소개: 平井榮一, 『佐渡鑛山史 稿本』

정혜경

■ 자료의 생산 배경

‘平井榮一, 『佐渡鑛山史 稿本』’은 사도시 아이카와(相川)향토박물관 소장 자료이다. 표지에 ‘昭和25년’이라 기재되어 있으므로 1950년에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완성한 원고는 아니고 작성 중인 원고로 여러 군데에서 추기(追記)한 흔적이 있다.

2022년 1월 14일 일제피해자지원재단이 입수(익명의 일본측 연구자 제보로 재단이 입수, 이하 자료 제보자)했다. 목차에 따르면, 천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데, 일제피해자지원재단이 입수한 자료는 표지와 목차 6쪽, 내용 6쪽 등 극히 일부이다.

자료의 생산 배경에 대해서는 『사도금은산조사보고서』전 6권(2010~2016)의 해제(小風秀雅, 余湖明彦, 「해제 - 사도광산사의 내력과 성격」)에서 밝히고 있다.(※자료 제보자 제공)

이 자료는 현재 사도시 아이카와(相川)향토박물관과 미쓰비시사료관이 소장하고 있다. 두 소장처 자료는 동일한 복사본이다. 미쓰비시사료관 소장본은 (주)골든 사도 소장자료로 보인다

이 자료는 2000년대에 니가타(新潟)현립도서관에서도 소장하고 있었는데, 자료 기탁자인(주)골든 사도의 의향에 따라 비공개가 되었다. 일제피해자지원재단 자료 제보자는 이 자료를 2015년 8월 니가타현 교육청 문화행정과 세계유산기록추진실에서 확보했다고 한다.

니가타현 교육청 문화행정과 세계유산기록추진실에 따르면, 이 자료에 실린 내용은 전체 『사도금은산조사보고서』전 6권(2010~2016)에 게재했다.

이 자료는 1949년 당시 사도광산의 소유권자인 다이헤이(大平)광업²⁾ 사장이었던 하니 미치유키(羽仁路之)가 히라이 에이이치(平井榮一)에게 원고 집필을 의뢰한 데서 탄생했다. 그러나 『佐渡鑛山史』는 출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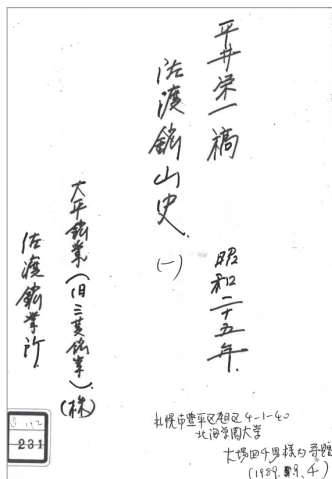
1) 익명의 자료 제보자가 붙인 자료명으로 보인다.

2) 자료에 따라 다이헤이(大平)와 타이헤이(太平)로 혼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이헤이를 사용하지만, 1949년 작성한 공탁금 현황표에서는 타이헤이로 사용했다. 미쓰비시광업은 1950년에 미쓰비시광업과 다이헤이(大平)광업으로 분리되었다가 다이헤이광업은 1952년에 미쓰비시금속광업으로 회사명을 변경한 후 1973년에 다시 미쓰비시금속으로 변경했다. 미쓰비시광업은 1973년에 미쓰비시광업시멘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두 회사는 1990년에 미쓰비시머티리얼로 통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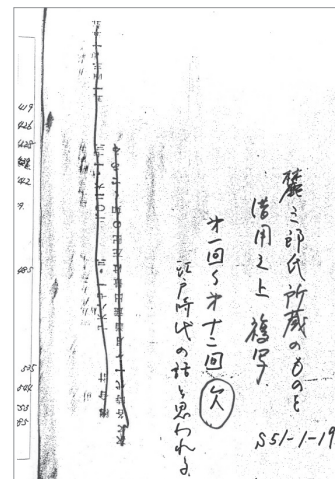
지 못하고 초고의 상태로 남았다.

* 하니 미치유키(羽仁路之, 1891~1980) : 야마구치(山口)현 출생. 1931년 도쿄제국대학 경제학부 졸업. 미쓰비시합자 광산부 입사. 1946년 三菱鉱業 取締役을 거쳐 1947년 사장에 취임. 1950년 제2회사인 다이헤이광업을 창립해 사장을 역임. 1973년 미쓰비시금속광업으로 개칭한 후 전국광산회장과 일본 광업협회장 등 역임

* 히라이 에이이치(平井榮一, 1895~1956) : 사도 아이카와에서 출생. 다이쇼 초기부터 사도광산에 근무해 사도광산 채광과장(기사)를 마지막으로 퇴직. 퇴직 후 相川町立사도박물관 초대 관장, 相川町교육위원장, 미쓰비시금속광업 참사(参事)를 역임



〈그림 1〉겉표지



〈그림 2〉속표지

겉표지에는 ‘平井榮一稿 佐渡鑛山史(一) 昭和二十五年’과 ‘大平鑛業(舊三菱鑛業)(株) 佐渡鑛業所’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홋카이학원(北海學園)대학의 오쿠마 요시오(大隈四千男)에게 기증(1989.9.4.)’했다는 메모가 있다.

속표지에는 ‘麓三郎 소장 자료를 빌려서 복사’했다는 내용과 ‘제1회~제12회는 누락되어 있는데, 에도 시대의 내용으로 생각된다’고 기재했다. 속표지 작성 일자 ‘소화 51년 1월 19일’ 즉 1976년 1월 19일이다. 속표지 좌측에 목차의 일부가 보이는 점을 볼 때, 목차의 공란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겉표지의 메모 작성자와 속표지 작성자는 알 수 없다. 필체를 볼 때 동일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1950년에 히라이 에이이치가 작성한 자료를 1976년 1월 19일에 후모토 사부로에게 빌려서 복사를 했고, 다시 이 자료를 1989년 9월 4일에 오쿠마 요시오에게 기증했음을 알 수 있다. 후모토 사부로에게 자료를 빌린 사람(속표지)이나 오쿠마 요시오에게 기증한 사람(겉표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 자료 제보자는, 속표지에 ‘후모토 소장 자료’라고 기재한 것은 『佐渡鑛山史 稿本』의 에도시대 부분

(제1회~제12회)을 후모토가 『佐渡金銀山史話』를 집필할 당시에 사용했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또한 후모토는 『佐渡金銀山史話』에 히라이 에이이치가 작성한 보론 「구 막부시대의 광산 기술」과 「사도의 금은산출량에 대하여」를 게재했다.

* 후모토 사부로(麓三郎, 1893~?) 구제 도쿄고등상업학교 졸업. 구제 도쿄고등상업학교 전문부 졸업. 1927년 미쓰비시 합자회사 입사. 미쓰비시광업 해외부장, 인사부장, 총무부장, 감사역을 역임(1953년 5월). 『佐渡金銀山史話』(미쓰비시금속광업, 1956)과 『三菱飯塚炭鑛史』(미쓰비시광업, 1961) 등 다수의 저작과 번역서 등을 남김. 1976년 출간한 『三菱鑛業社史』 편찬에 촉탁으로 참가.

후모토는 미쓰비시광업의 전체상을 쓸 수 있는 사원. 히라이가 『佐渡鑛山史 稿本』를 집필할 당시 후모토가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했다고 알려져 있음. 『佐渡金銀山史話』에 따르면 “히라이씨의 원고가 완성되었는데, 히라이씨는 오직 기술적인 입장에서 집필했으므로 하니사장이 나(후모토)에게 일반적으로 읽을 만한 것이라도 알맞은 것을 써서 보여주면 어떨까 하고 종용했다”(※자료 제보자)

■ 자료의 주요 내용

목차는 다음과 같다.

[illegible]

〈그림 3〉 목차

일제피해자지원재단이 입수한 자료는 표지와 목차 6쪽, 내용 6쪽이다. 표지와 목차를 제외하면, 내용은 419쪽·420쪽·844쪽·846쪽·847쪽·848쪽이다.

한정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특기할만한 내용은 두 가지로 보인다. 다음의 두 가지는 기존의 자료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첫째, 사도광산 역사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시기는 에도시기가 아니라 ‘일본 근대시기’라는 점이다. 니가타현은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신청을 하면서 사도광산의 대상 시기를 센고쿠(戰國)시대(1467~1590년) 말부터 에도(江戸)시대(1603~1867년)로 한정하고, 에도시기의 제련기술 등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는 ‘사도광산의 근대사’에 주목했다. “부유선광장을 신설하는 등 획기적인 개혁을 실현해 여러 곤란을 극복하고 1940년에 생산 신기록을 달성”해 1940년에 금 1,537.9톤, 은 24,494톤을 생산했다고 강조했다. 자료에서 ‘획기적인 개혁’이라 언급한 부유선광장은 1938년에 설치한 시설이다.

둘째, 1944~1945년 조선인 동원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는 점이다. 히라이는 이 1944~1945년 동원규모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으나 후모토 사부로가 작성한 내부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자료 제보자)

히라이는 1944~1945년에 조선인이 514명 증가해 압도적 노동자였다고 기술했다. 514명이 총 동원 인원(누적)인지, 현재 동원한 인원인지는 알 수 없다.

- 총 동원 인원(누적)의 경우 : $1,005 + 514 = 1,519$ 명
- 현재 동원 인원의 경우 : $584 + 514 = 1,168$ 명

Figure 6 shows a page from a Japanese manuscript. The text is written vertically in Japanese. At the bottom, there is a table with two columns of numbers. The first column contains the numbers 268 and 841. The second column contains the numbers 268 and 841. The text around the table discusses the history of the mine and the labor force.

〈그림 6〉 844쪽 내용

Figure 7 shows a page from a Japanese manuscript. The text is written vertically in Japanese. At the bottom, there is a table with two columns of numbers. The first column contains the numbers 268 and 841. The second column contains the numbers 268 and 841. The text around the table discusses the history of the mine and the labor force.

〈그림 7〉 846쪽 내용

특히 직종별 인원 현황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을 비교하며 갱내 노동에서 조선인의 비율을 강조했다.

846쪽에서 언급한 직종별 인원 현황은 1943년 6월 7일, 미쓰비시광업(주) 사도광산 측이 감독기관인

도쿄광산감독국과 대일본산업보국회, 도쿄지방광산부회에 제출한 보고서(문서번호 855호) 「사도광업소반도노무관리에 대하여(佐渡鑛業所半島勞務管理ニ就テ)」를 근거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강조한 직종별 인원 현황은 848쪽에서 다시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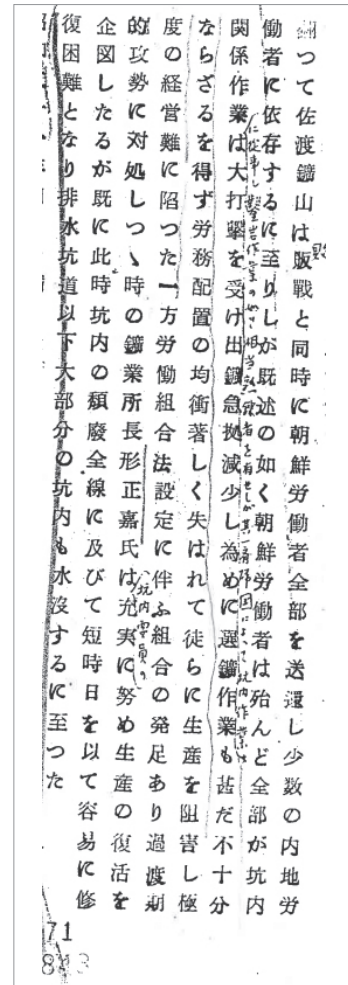
848쪽은 일본 패전 후 사도광산의 상황을 기술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조선인노동자가 거의 전부 갯내 관계 작업에 종사’했음을 명시했다. 히라이는 특히 처음 기술한 문장에 누락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 “작업 작업과 같이 상당한 숙련자가 있었는데, (*조선인이)일제히 귀국함에 따라 갯내 작업은 큰 타격을 입고 출광은 급속히 감소했으므로 선풍작업도 불충분해져서 노무배치의 균형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생산을 저해 해 극도의 경영난에 빠졌다”고 기술했다.

그 외, 기존의 자료를 답습하는 과정에서 조선인의 실태를 제대로 기술하지 않았던 부분도 볼 수 있다. 그림 7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조선인은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단체생명보험에 가입시키고 재적 중 보험료는 모두 회사가 부담하며 불행한 일을 당치면 보험금 3백엔을 주고 재해에 대한 부조, 퇴직의 경우 급여관계 등에 내선구별이 없었다’고 기술했다. 이 내용은 1943년 6월 7일, 사도광산 측이 감독기관인 도쿄광산감독국과 대일본산업보국회, 도쿄지방광산부회에 제출한 보고서(문서번호 855호) 「사도광업소반도노무관리에 대하여(佐渡鑛業所半島勞務管理ニ就テ)」 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나 1943년의 보고서는 감독기관의 보고용으로서 의미가 있으나 당시 상황을 정확히 담은 자료라 볼 수 없다. 두 번이나 큰 부상을 입은 임태호는 어떤 부조료도 받을 수 없었다. 히라이는 ‘내선구별이 없었다’고 기술했으나 임태호는 열흘간 허리를 들 수 없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으나 현지에 있는 사도광산 소속 병원에 갈 수 없었다.

■ 향후 과제

이 자료의 가장 큰 한계는 일반적인 기업사에서 보이는 한계인데, 기업의 입장을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이다. 또한 근거를 밝히지 않다는 점이다. 작성자(히라이 에이이치)와 작성연도(1950년)는 알 수 있으나 히라이가 사용한 사료의 근거를 파악할 수 없다. 특히 1944~1945년간 조선인 동원규모를 밝힌 유일한 자료이지만 통계의 근거는 알 수 없다.



〈그림 8〉 848쪽 내용

통계의 근거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과제의 하나이다. 자료 제보자는 히라이가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사료를 미쓰비시 경제연구소 부속 미쓰비시자료관(도쿄 소재, <http://www.meri.or.jp/shiryo/mer300j.htm>)이나 게이오대학 미타(三田)미디어 센터(<https://www.lib.keio.ac.jp/mita/>), 규슈대학부속도서관 기록자료관(<https://www.lib.kyushu-u.ac.jp/ja/libraries/manuscript> 산업경제 자료부분 소장자료, 구 석탄자료센터 소장 자료)에서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미쓰비시 자료관은 자료 공개 여부가 불명하고, 미타(三田)미디어 센터도 주로 단행본 중심이다. 규슈대학부속도서관 기록자료관은 미쓰비시 관련은 하시마탄광이나 지쿠호(筑豊)지역 탄광자료가 있을 뿐 사도광산과 관련한 자료는 소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등재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한 상황에서 일본에서 자료 수집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제피해자지원재단이 입수한 자료가 『佐渡鑛山史 稿本』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도 두 번째 과제이다. 물론 천 쪽에 달하는 내용 가운데 조선인과 관련한 내용(제22회 자료)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가운데에서도 재단이 입수한 조선인 관련 내용은 제22회 자료의 일부이다.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나 자료의 형태적 가치를 위해서도 『佐渡鑛山史 稿本』의 전체 자료를 입수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국내에 소장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발굴하는 일이다. 자료 제보자가 제보한 또 다른 자료에는 경성제국대학 도서관 소장자료가 있다. 池上重康·砂本文彦, 「京城高等工業学校鉱山学科·京城鉱山専門学校採鉱学科実習報告書目録」(『エネルギー史研究—石炭を中心に』25호, 2010년 3월)에 따르면, 경성고등공업학교(서울대 공대의 전신) 학생들은 반드시 광산에서 현지학습을 한 후 학교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1941년도 보고서는 사도광산이 대상이었다. 주로 지질이나 광상(鑛床), 제련기술 등이 조사 대상이지만 광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2022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학술 세미나

일본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도광산’의 강제동원 역사 왜곡

Session 01. 주제 발표

02.
근대기의 세계유산: 갈등과 극복의 조건

강동진(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ICOMOS 한국위원회 이사)



2022.1.27.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사도(佐渡)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 대응방안

근대기의 세계유산 : 갈등과 극복의 조건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본 발제문에서 사용된 사진들의 상당수는 유네스코 홈페이지의 것입니다.

2015년 7월 5일 이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본, 독일

과정

- ICOMOS의 권고 : **전체 역사** Full History를 알리라는 것
 - 한정된 등재 시기(1850년~1910년) 외의 역사를 드러내라는 요구
- ↓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중재
 - 사토 구니 주유네스코 일본대사 :
강제 노역 forced to work이라 언급하며 강제동원을 국제사회에서 공식 인정
 -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 → 세계유산 등재
- ↓
- 2015년 7월 6일부터 일본의 계략과 술수의 본격화
 - 세계유산위원회의 요구에 대한 결정문(39 COM 8B.14), (42 COM 7B.10) 발표
 - 일본의 대응 :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 조성 등
 - 2021년 6월 7~9일 유네스코 및 이코모스 전문가 총 3인의 일본 현장실사
 - **완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① 전체 역사 : 유산의 전체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 ② 강제노동의 사실 : 강제동원을 당한 이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해석 조치 불충분
 - ③ 희생자 기념 : 피해자를 기리는 목적에 적합한 전시물은 없는 것으로 판단

근대기의 세계유산 : 갈등과 극복의 조건

발제 목적

여러 의문들에 대한 해소

세계유산은 무엇인가?

왜 이리도 세계유산을 가지려 하는가?

근대기 세계유산이 가지는 속성과 특성은 무엇인가?

근대문화유산에 내재된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갈등의 극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런데 일본은? : 그들의 행태와 목적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의 유사품 : 사도광산

근대기의 세계유산 : 갈등과 극복의 조건

근대기의 세계유산 : 갈등과 극복의 조건

세계유산의 영역은 어디까지 인가?

탄생과 현황



세계유산 World Heritage

[2021년 12월 기준]

167개국 1,154점

참정목록 : 179개국 171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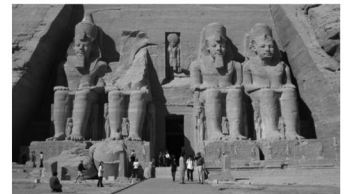
인류무형문화유산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대한민국 21개

세계기록유산
Memory of the World

대한민국 16개

- 1959년 이집트 아스완댐 건설 → 빈곤퇴치와 개발을 위한 선택
 - 나일강 상류 고대문명(누비아 유적지)(아부셈벨 신정 포함) 수몰 위기
 → 이집트와 수단 정부의 지원 요청
 → 제55차 유네스코 집행위에서 유적 이전에 대한 지원 결정
 - 1968년 이전 복원 완료
 - 1972년 세계유산협약 채택 / 1975년 세계유산 제도 시작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897점

대한민국 13개

자연유산
Natural Heritage
218점

대한민국 2개

복합유산
Mixed Heritage
39점

대한민국 0개

근대기의 세계유산 : 갈등과 극복의 조건

갖추어야 할 것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 의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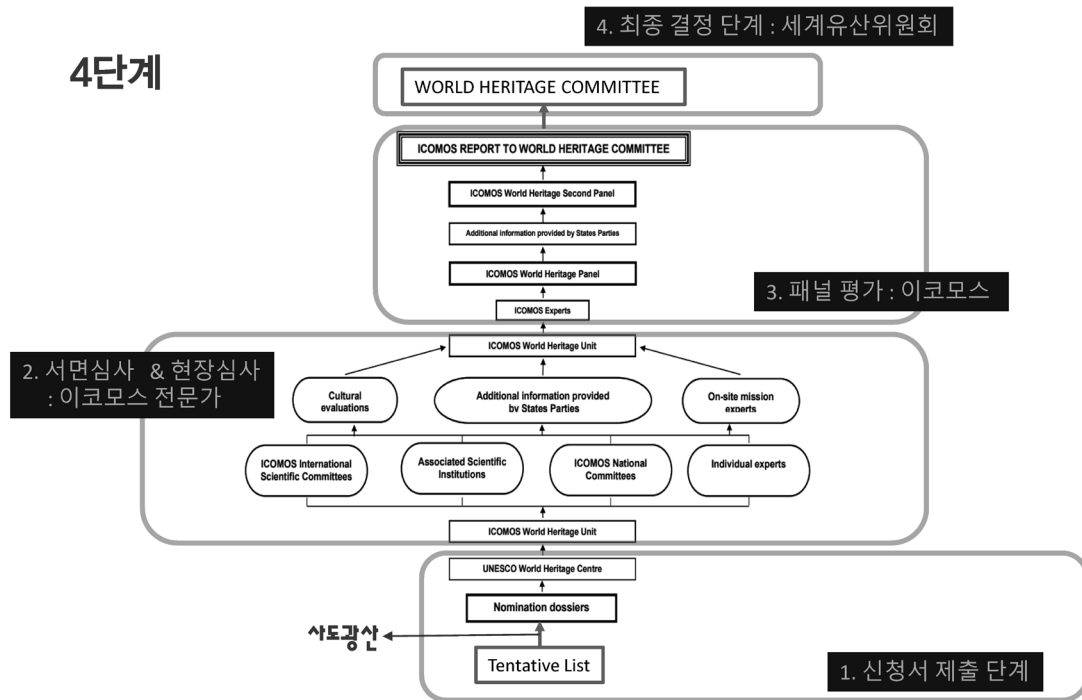
- 10가지 등재 기준에 합당(부분적)
- 완전성(모든 유산)과 진정성(문화유산)을 보유

공통	세계유산은 공통으로 완전성(integrity;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요소 보유)이 반드시 필요
문화유산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Masterpiece
	II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Values/Influence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Testimony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Typology
	V 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Land-use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Associations
모든 세계(문화)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 형태와 디자인, 재질, 기법, 의식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이 반드시 필요	
자연유산	VII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Natural Beauty & Aesthetic Importance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Outstanding Examples Representing Major Stages of Earth's History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Outstanding Examples Representing Significant on-going Ecological and Biological Processes
	X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 the Most Important and Significant Natural Habitats

근대기의 세계유산 : 갈등과 극복의 조건

등재 과정

4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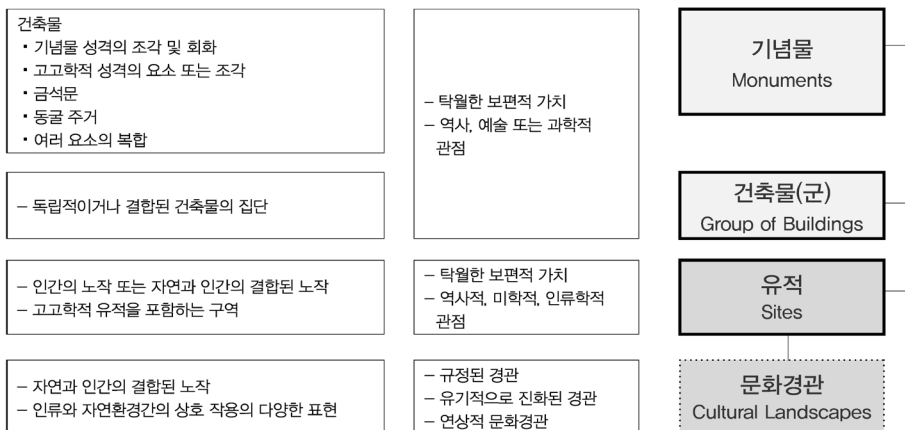


근대기의 세계유산 : 갈등과 극복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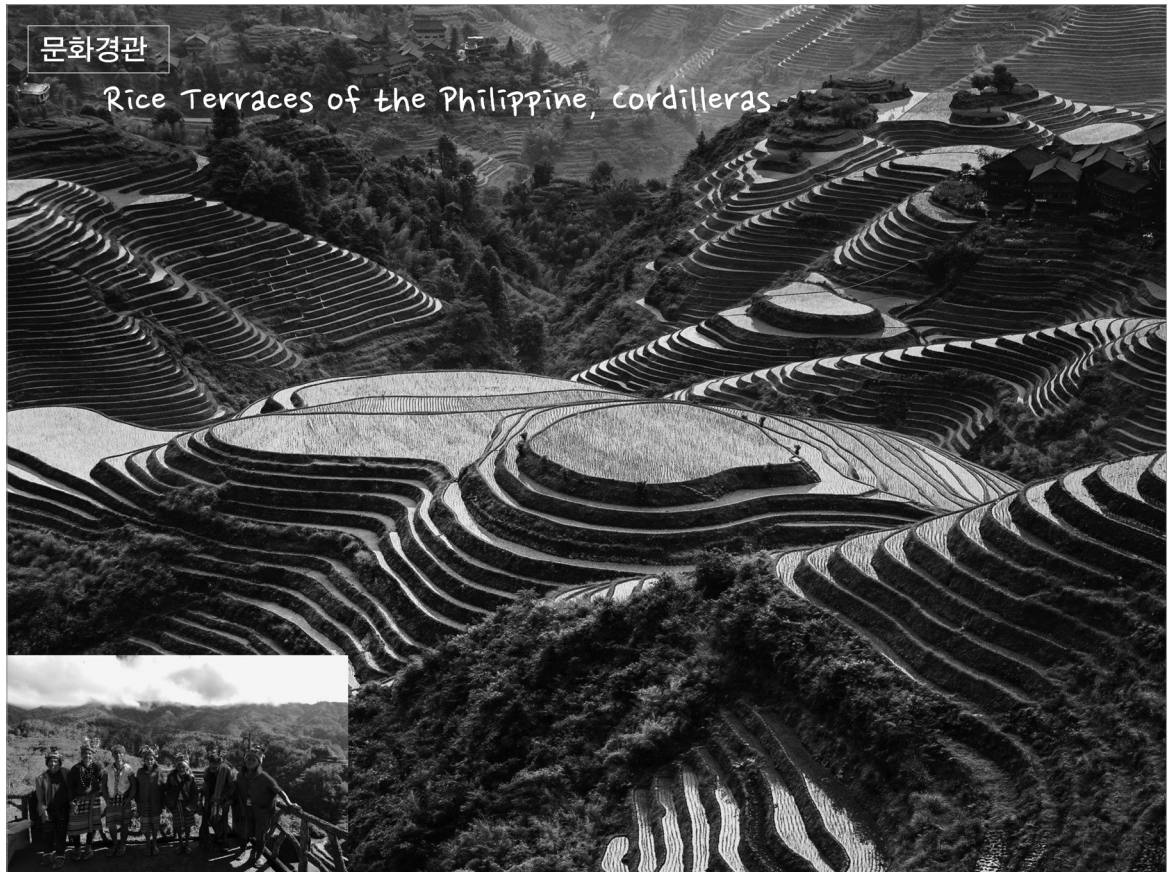
유산의 구성

구성 체계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



근대기의 세계유산 : 갈등과 극복의 조건



유산의 구성

근대기의 유산

주제	대륙 유럽과 북미	남미와 중남미	아시아와 태평양지역	아프리카	아랍지역	초국경유산	계
도시계획 및 근대건축술	68	26	13	5	0	4	116
건설인프라	16	2	1	0	0	1	20
특수 목적의 단지/시설	6	8	9	8	0	1	32
산업유산	34	10	6	0	1	1	52
군사방어 유산	10	5	0	2	2	1	19
전쟁유산	4	0	2	0	0	0	6

- 도시계획 및 근대건축술관련유산이 116개소로 가장 높은 빈도
→ 유럽과 북미(68건)는 1,2차 세계대전 후 재건을 위한 도시계획과 근대주의에 기반 한 도시계획과 건축술의 확산 과정이 반영
- 산업유산의 경우, 유럽과 북미(34건)의 빈도가 가장 높음
- 특수목적 단지/시설 중 아시아태평양지역, 아프리카와 남미/중남미의 높은 빈도
→ 식민지와 노예수송 등 근대기에 발생한 강대국들의 침략사와 직접 연관되기 때문

근대기의 세계유산 : 갈등과 극복의 조건

내재된 경향

① 근대기 국제사회를 주도했던 국가들의 과열 경쟁

근대기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상위국

- ① 독일 : 23개소/51개소 중 - 근대 점유율 45%
- ② 영국 : 19개소/33개소 중 - 근대 점유율 58%
- ③ 브라질 : 14개소/23개소 중 - 근대 점유율 61%
- ④ 멕시코 : 12개소/35개소 중 - 근대 점유율 34%
- ⑤ 일본 : 7개소/25개소 중 - 근대 점유율 28%

* 브라질과 멕시코 : 식민시대 개척사와 연관되어 탄생한 근대유산의 분포

* 제국주의 국가들이 저질렀던 각종 부정적인 행위들까지 미화하거나 합리화하는 경향 급증

→ 식민지개척, 노예수송, 침략전쟁, 강제동원 등

* 근대기의 부정적 역사와 연관된 유산들을 교훈의 대상으로 삼자는 논리 대두

→ 역사성이 떨어지고 다소 부정적 의미를 가진 근대의 물증과 현장들도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 아시아 근대화와 관련한 왜곡된 일본의 총력전 전개

근대기의 세계유산 : 갈등과 극복의 조건

내재된 경향

② 다크투어리즘과 불편문화유산 개념의 확장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죽음이나 재난과 관련한 장소를 회상,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
킬링 필드(Killing Field)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강제수용소(Auschwitz Birkenau)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Hiroshima Peace Memorial) 등

샤론 맥도날드(Sharon MacDonald)가 사용
세계 2차대전 후 나치가 남긴 흔적이 문화유산
화(heritagization) 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문
화유산을 통칭하는 용어로 알려짐
(이현경, 2018)

불편문화유산 Difficult Heritage

고통과 아픔의 역사적 사건과 연결된 장소가 그 역사적 사건 이후 문화유산화 되는 과정에서, 국가/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며 수반되는 기억 분쟁과 정치적 분쟁을 통칭하는 용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가 다각적으로 분화되기에, 그 해석의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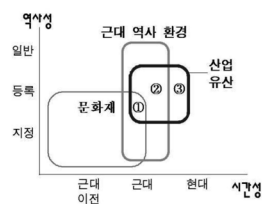
근대기의 세계유산 : 갈등과 극복의 조건

내재된 경향

③ 산업유산의 보편화 및 다변화

산업혁명 후, 공업 중심의 근대화 과정에서 남겨진 과학기술 연관 유산
경제개발 착수기인 60~70년대까지 조성된 산업시설들도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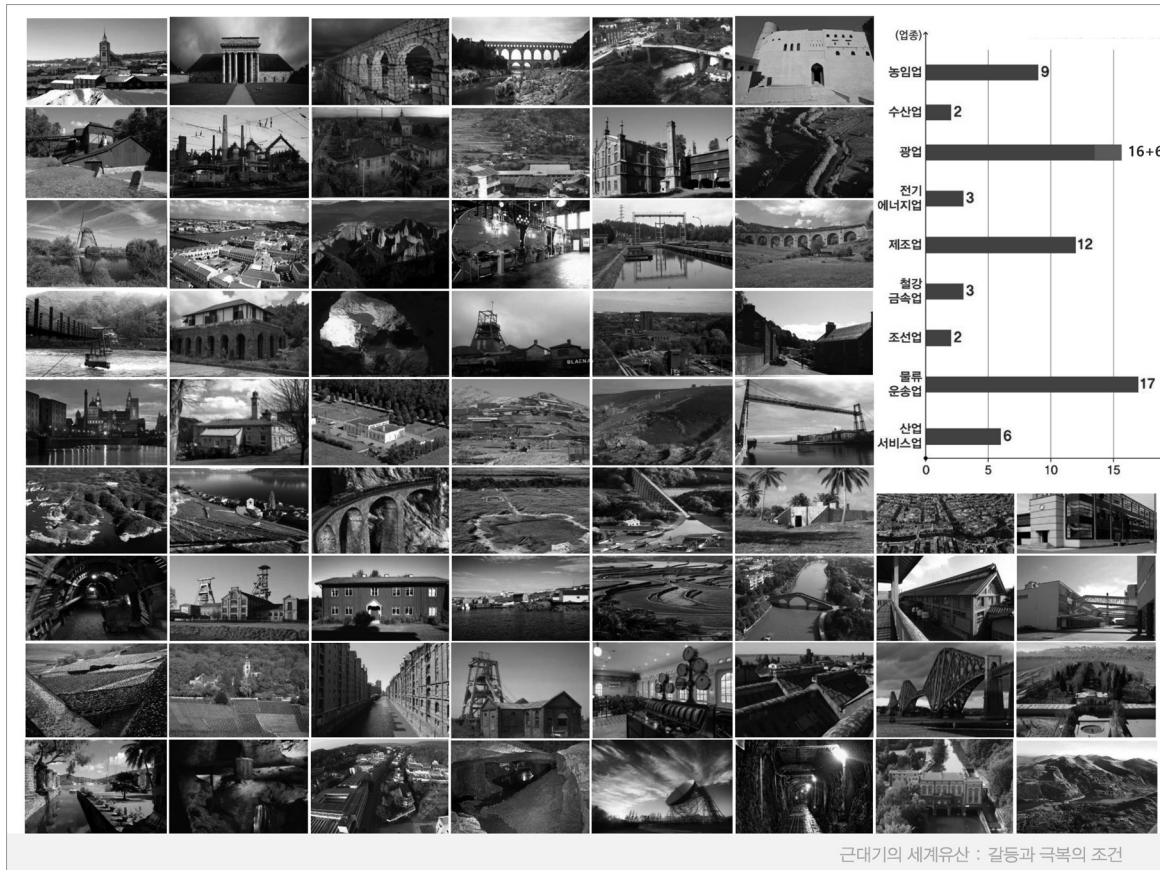
생산 중심의 1차산업 + 산업 중심의 2차산업 + 서비스 중심의 3차산업



산업유산 Industrial Heritage

- * 하 드 웨 어 : 시설 자체, 터와 장소, 기계 및 설비류, 해당 지역 등
- * 소 프 트 웨 어 : 산업기술, 작동시스템, 산업풍경, 시설 도면과 문서류 등
- * 휴 먼 웨 어 : 연고기업(소유자, 관리자), 기술자, 노동자, 노동자 가족 등

근대기의 세계유산 : 갈등과 극복의 조건



근대기의 세계유산 : 갈등과 극복의 조건

근대기 세계유산의 유형은 어떠한가?

유형①

탁월성보다는 보편성이 강조되는 유산

보편적 희소성이 강조되는 유산 등재의 경향 확장
상당수가 근대기의 유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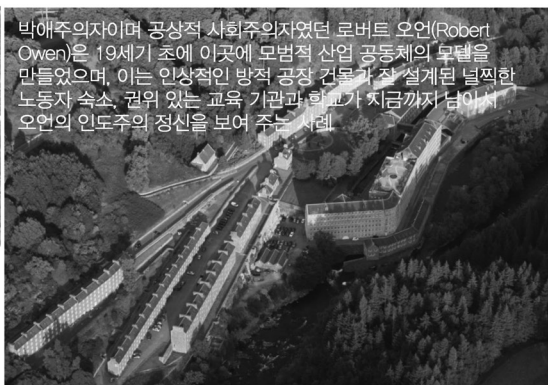
〈예〉

- 아시아 최초의 산업혁명 유산임 강조하는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유산
- 유토피아운동을 상징하는 영국의 레나크
- 세계 최대의 광산인 독일의 쾰페라린광산
- 오스트레일리아 문명 발전의 근거가 된 오스트레일리아 교도소
- 특수한 와인산업과 관련되는 프랑스의 와이너리 유산들
- 한자동맹을 배경으로 하는 독일 함부르크의 창고군
- 민주적 저항운동을 상징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로벤섬
- 아프리카 노예수송의 시작과 끝을 이해하는 잠비아의 쿤타킨데섬

유형① 탁월성보다는 보편성이 강조되는 유산의 증가

New Lanark / 스코틀랜드

등재년도 : 2001년 / 사우스 래너크셔(South Lanarkshire) / 유산면적(완충구역) : 146ha(667ha)



박애주의자이며 공상적 사회주의자였던 로버트 오언(Robert Owen)은 19세기 초에 이곳에 모범적 산업 공동체의 모델을 만들었으며, 이는 인상적인 방직 공장 건물과 잘 설계된 널찍한 노동자 숙소, 권위 있는 교육 기관과 학교가 지금까지 남아서 오언의 인도주의 정신을 보여 주는 사례

(ii)
리처드 아크라이트의 새로운 직물 제조 공장 시스템이 뉴 래너크에 도입되자, 노동자와 관리자들을 위한 숙소 및 기타 시설이 필요해졌다. 그리고 로버트 오언은 19세기와 20세기에 전 세계로 확산된 산업 공동체의 모델을 이곳에 만들었다.

(iv)
뉴 래너크에는 시설이 잘 갖추어진 훌륭한 설계의 노동자 숙소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정신적·육체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공공건물도 건설되었다.

(vi)
뉴 래너크라는 이름은 로버트 오언과 그의 사회 철학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진보적인 교육, 공장 개혁, 인간적인 노동 조건, 국제적 협력, 정원 도시 등에 투영된 그의 사회 철학은 19세기뿐 아니라 그 이후 시대까지 사회 발달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유형① 탁월성보다는 보편성이 강조되는 유산의 증가

Speicherstadt and Kontorhaus District with chilehaus / 독일

등재년도 : 2015년/ 유산면적(완충구역) : 26,08ha(56,17ha) / 기준 (iv)

슈파이허슈타트(Speicherstadt) 및 인접한 콘토르하우스(Kontorhaus) 지구는 독일의 항구도시인 함부르크(Hamburg)의 한가운데 빌딩 숲이 빽빽하게 들어선 도심에 있으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이룬 국제무역의 급속한 성장이 낳은 전형적인 결과물이다.

슈파이허슈타트는 본래 1885년부터 1927년 사이에 엘베(Elbe) 강에 떠 있는 길이 1.1km의 여러 좁은 섬들 위에 건축되었고(1949년부터 1967년까지 부분적으로 재건축), 항구의 창고 시설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통일감 있고 유사 깊은 단지로 조성되었다.

[창고도시]를 의미하는 슈파이허슈타트는 독창적이면서도 예스러운 보이는 외관에 첨단 기술 설비와 장비가 들어선 총 15개의 대규모 창고 구역과 6개 동의 부속 건물, 그리고 이 시설들을 연결하는 도로, 운하, 다리 등의 연결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창고군을 위한 선택

유형②

시대별 상징적 사건이나 무형적 특성 관련 유산

약육강식과 침략시대의 근대기 특성 반영

유산 자체의 고유한 가치보다 전쟁과 평화, 인간존엄성 파괴에 따른 저항, 산업화와 기술발전 등 스토리와 연계된 무형적 성격을 가진 유산 증가

대부분 특정 사건에 연관되며, 산업혁명, 식민지 개척과 쟁탈, 세계1/2차대전, 민주화 투쟁, 원자폭탄 투하, 원폭 실험 등이 주를 이룸

지역(대륙)차원에서의 [최초] [최대] 조건 보유 유산의 등재

최초 노예수송, 최초 소금광산, 최초 노예시장, 최초 철교, 최초 근대식 식물원, 최초 산악철도, 최초 커피 재배지, 최초 증기선 출발지, 증기선 운항을 위한 최초 운하, 산업혁명 최초의 이상주의 건축군, 아시아 최고의 식물원(식민시대) 등
최대 건식수로체계, 당시 최대의 도시계획실험장, 최대 토목공사 등

등재기준 VI번(사건 등)의 유산 다수 등재

단독 9개소, 중복 40여개소 / 총 50여개소

근대기의 세계유산 : 갈등과 극복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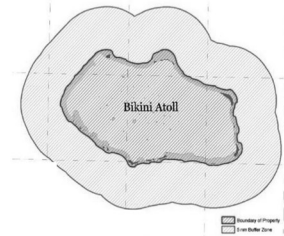
유형② 시대별 상징적 사건이나 무형적 특성 관련 유산

Bikini Atoll Nuclear Test Site / 마셜 제도

등재년도 : 2010년 / 유산면적(완충구역) : 73,500 ha(130,425 ha)



미국은 태평양 마셜 제도의 비키니 환초에서 핵실험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역 주민을 이주시킨 뒤 1946년~1958년에 최초의 수소폭탄 실험(1952년)을 포함해 총 67회의 핵실험이 실시하였음 이는 핵실험의 위력을 보여 주는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사례



(iv)

비키니 환초는 핵실험지에 대한 탁월한 사례이다. 이곳에는 수많은 군사 유물과 특유의 지상 및 수중 경관 요인이 있다. 이는 냉전시대 탄생의 유형적인 증거로, 핵무기 개발에 대한 끝없는 경쟁을 증명한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된 이후, 비키니 섬에서 이루어진 핵실험은 인류가 '핵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 또 주민 이주와 공중위생과 관련된 이슈는 비키니 환초와 마셜 제도에서 민간인에게 끼친 핵실험의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vi)

비키니 환초 핵실험지 또는 좀 더 넓게 얘기해서 냉전 시대를 특징짓는 무기의 확대와 관련된 생각과 믿음은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사건은 핵 군축을 옹호하는 다수의 국제적 움직임을 유발하였다. 그들은 20세기 후반을 특징짓는 핵 시대와 관련된 강력한 상징과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 냈다.

근대기의 세계유산 : 갈등과 극복의 조건

유형② 시대별 상징적 사건이나 무형적 특성 관련 유산

Kunta Kinte Island and Related Sites / 감비아

등재년도 : 2003년/ 유산면적(완충구역) : 7.6ha(300ha)

감비아 강 유역을 따라 유럽이 아프리카로 진출하면서 만들어낸 문화적 흔적을 보여주는 사례

감비아의 전(前) 식민시대 또는 전(前)노예시대일 때부터 독립할 때까지의 시점까지를 아우르는 유적이며, 특히 노예무역의 시작 및 폐지와 연관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며, 유럽의 초기 아프리카 내륙 진출에 관한 흔적을 찾을 수 있음

(iii)

쿤타킨테 섬, 그리고 감비아 강변에 위치한 관련유적들은,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 유럽이 아프리카에 진출하여 교류한 다양한 국면의 흔적을 탁월하게 보여준다. 감비아 강은 아프리카 내륙으로 진입하는 최초의 무역로였으며, 초기 노예무역 경로이기도 하였다.

(vi)

쿤타킨테 섬과 관련유적 즉, 마을들과 대포(大砲) 진지는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노예무역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습과 관련 있으며,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와 연관된 노예무역에 대한 과거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근대기의 세계유산 : 갈등과 극복의 조건

유형③

특별한 근대식 도시/건축 등 조성기법 및 인물 관련 유산

근대식 도시계획과 건축관련 기법이나 양식의 우수성이나 희소성 강조 유산

바우하우스, 모더니즘, 바로크양식 등 건축양식들과 19~20세기의 건축, 토목기술을 상징하는 대규모 공장이나 단지시설들이 해당

① 인물명(건축가)이 유산명에 표기되는 경우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í), 빅토르 오르타(Victor Horta), 카를로스 라울 빌라누에바(Carlos Raúl Villanueva), 루이스 바라간(Luis Barragan), 오귀스트 페레(Auguste Perret),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등

*노예수송의 상징 유적인 쿤타킨테 섬과 관련 유적(Kunta Kinteh Island and Related Sites)

② 바우하우스, 근대주의건축 등 건축양식과 관련된 유산 : 25개소

③ 바로크 등 도시계획관련 유산 : 7개소

* 넬슨 만델라를 기념하는 <Human Rights, Liberation Struggle and Reconciliation: Nelson Mandela Legacy Sites>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

근대기의 세계유산 : 갈등과 극복의 조건

유형③ 특별한 근대식 도시계획/건축 등 조성기법과 인물 관련 유산

Robben island /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재년도 : 1999년 / 웨스턴 케이프 주(Western Cape Province)
/ 유산면적(완충구역) : 475ha(1600ha)



17세기~20세기까지 감옥, 군사기지, 사회부적격자(한센병 환자)를 수용하는 병원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중 감옥은 20세기 말에 정치범을 수용한 곳으로 억압과 인종차별에 저항하여 민주주의 자유가 승리를 거둔 사실을 증언하는 사례

(iii) 로벤 섬의 건물들은 이 섬의 어두운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한다.

(vi) 로벤 섬과 감옥은 억압을 이겨낸 인간 정신, 자유, 민주주의의 승리를 상징한다.

[특이성]

- (a) 1845년~1931년 기간 동안 약 4,000명의 한센병 환자가 격리 수용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한센병 교회 및 한센병 수용소가 유산으로 포함되어 있음
- (b)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18년(27년 중) 수감했던 곳



근대기의 세계유산 : 갈등과 극복의 조건



유형④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유산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으나 교훈의 대상이 되는 유산

difficult heritage, negative heritage, cold heritage, minus heritage,
부(負)의 유산 등

– 현재 세계유산 중,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유산은 약 60개소로 분석

– 주제는 대부분 전쟁, 분규, 착취, 식민 등과 관련

유산 자체는 세계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떨어짐
그럼에도 등재되는 이유는 후대에 대한 교훈 제공의 의미 때문

예를 들어,

인류에게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후대가 기억하여야 할 독립과 민주화의 저항 현장이다.

비록 불행한 역사이지만 국제적 화해와 평화의 기폭제가 되었다.

등의 교훈을 내포한 유산들로 평가되는 경우

유형④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유산

Auschwitz Birkenau German Nazi concentration and Extermination camp (1940-1945) / 폴란드

등재년도 : 1979년



(vi)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강제 수용소는 주요 사건, 살아 있는 전통, 사상, 신념, 그리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예술 및 문학 작품 등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는 나치 독일(1933~1945)이 계획적으로 유대인과 수많은 사람들을 집단 학살한 증거이며, 인간성에 반하여 자행된 범죄 행위의 부정할 수 없는 증거이다.

이 수용소는 자유로운 행동과 사상을 억압하고 한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했던 나치 독일의 시도에 끔찍한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저항했던 강한 인간 정신을 기념한다.

이 유적은 유대인 대학살, 인종차별 정책, 인간의 야만성을 전 인류에게 상기시키는 주요 장소이다. 또한 인류 역사의 어두운 한때에 관한 기억이 모여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곳이자, 과격한 사상이나 인간 존엄성 부정이 가져올 수많은 위험과 비극에 대한 경고의 장이기도 하다.

근대기의 세계유산 : 갈등과 극복의 조건

유형④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유산

Hiroshima Peace Memorial (Genbaku Dome) / 일본

등재년도 : 1996년 / 유산면적 : 0.4ha(완충지역 43ha)

히로시마(廣島) 평화 기념관(원폭 돔)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유일하게 남겨진 건물이다. 히로시마 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폭발 직후의 모습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초래한 참상을 보여주는 냉혹하면서도 강력한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궁극적인 폐기와 세계 평화에 대한 인류의 희망을 보여주는 유산이다.



근대기의 세계유산 : 갈등과 극복의 조건

유형④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유산

Site of Japan Meiji Industrial Revolution / 일본

등재년도 : 2015년 / 유산면적(완충구역) : 307ha(2,408ha)

23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구성되며, 각 개별 유산들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철강, 조선 및 탄광 산업의 발전상과 일본이 이룬 급속한 산업화를 증언하는 사례
19세기 중반부터 봉건국가였던 일본이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어떻게 이전 받았는지 그 과정과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일본 사회의 요구와 전통에 맞추어 변용했던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
23개소 유산 중 7개소 이상은 강제동원 사이트로 판명



근대기의 세계유산: 갈등과 극복의 조건

종합

상식 수준의 결론

- ① 근대기에 발생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특정 사건들과 관련된 부정적인 스토리가 내재된 유산들의 등재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 ② 유산 자체의 내.외관적 탁월성이 다소 부족한 유산들이 연속유산이나 초국경유산의 형식으로의 등재 확률도 점차 높아질 것임

근대기의 세계유산: 갈등과 극복의 조건

근대기의 세계유산 : 갈등과 극복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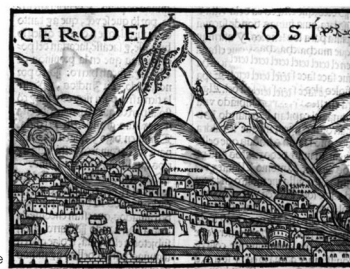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이러한 유산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

① 객관적인 사실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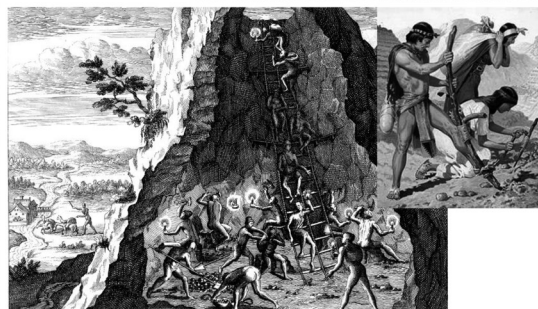
City of Potosí, 볼리비아 / 1987년 등재

포토시는 16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로 알려진 현대 은광의 훌륭한 예
스페인 식민지 주민들과 강제 노동자들을 위한 거주지에 대한 설명
17세기까지 포토시에서 자행된 강제동원의 사실 인정

By the 17th century there were 160,000 colonists living
in Potosí along with 13,500 Indians who were forced to work
in the mines under the system of mita (mandatory labour)



© TheGuguance



근대기의 세계유산 : 갈등과 극복의 조건

① 객관적인 사실 인정

Archaeological Landscape of the First Coffee Plantations in the South-East of Cuba, 쿠바 / 2000년 등재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식민지 커피 생산을 보여주는 문화경관
171개 오래된 커피농장으로 구성된 시에라 마에스트라 기슭의 가파르고 험준한 비탈이 지배하는 이 지형은 아프리카 노예들의 땀과 피를 통해 자연환경을 착취한 농장주들의 독창성을 설명
농장에는 소유자의 집, 계단식 건조 바닥, 제분 및 구이 생산 지역, 작업자 숙소가 포함

The topography, dominated by the steep and rugged slopes of the Sierra Maestra foothills, speaks to the plantation owners'(primarily of French and Haitian origin) ingenuity in their exploit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through the sweat and blood of their African slaves.

©Samuel Hazard
©Science Photo Library



근대기의 세계유산: 갈등과 극복의 조건

① 객관적인 사실 인정

일본의 양면성! **노동자**

산업유산은 화석화된 유적이 아님
그 산업을 작동했던 기능과 기술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또 그 산업을 작동시켰던 노동자들의 역사는 더욱 더 매우 중요한 것

야마모토 사쿠베이(山本作兵衛/1892-1984)

→ 7세 부터 63세까지 지쿠호 광산에서 일함



야마모토 사쿠베이에 컬렉션 The Sakubei Yamamoto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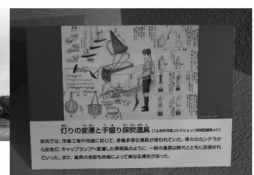
평생을 탄광에서의 기억을 옮긴 697점의 탄광 인부의 생활기록화
서양의 기술이 동양에 미친 피해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생활유산

→ 세계기록유산 등재 / 2010년

등재 당시 심사자는 손으로 적은 <인권선언>으로 평가



지쿠호탄광역사박물관



근대기의 세계유산: 갈등과 극복의 조건

②가해국의 진정한 사과

독일과 지도자들의 행보

1970년 12월 7일 / 폴란드 바르샤바
서독 빌리 브란트 총리가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희생자 위
령탑에서 헌화하며 무릎을 꿇고 있음



독일 지도자들의 50여 차례의 사과들



Zollverein Coal Mine Industrial Complex in Essen, 독일 / 2001년 등재



근대기의 세계유산 : 갈등과 극복의 조건

③인류애 정신의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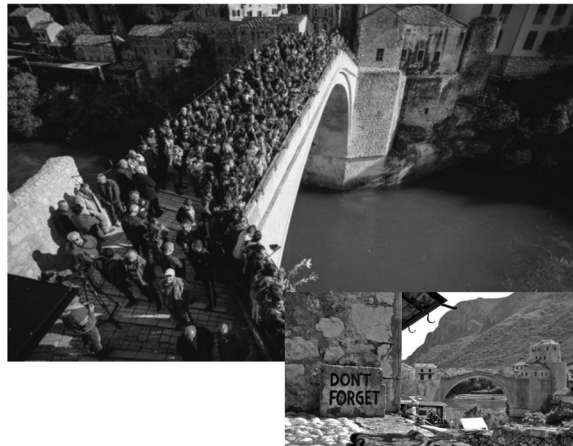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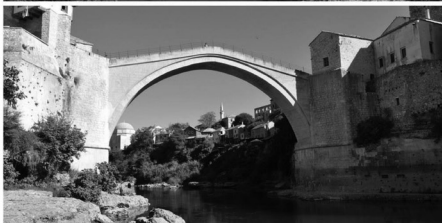
Old Bridge Area of the Old City of Mostar, 보스니아 / 2005년 등재

모스타르 옛 시가지는 여러 문화가 어우러진 건축 양식(오스만 이전, 오스만 동부, 지중해
및 서부 유럽) 및 경관이 어울려 도시 정착지를 이룬 훌륭한 사례

1992년~1995년 사이에 도시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전쟁으로 심하게 피해를 입어 도시 중심지가
폐허가 되었으며 옛 다리(1557~1566년 건설)가 파괴됨

1998년부터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옛 시가지 중심지에서 주요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

→ 다리의 복원 (7년 / 1,350 만 달러 소요 / 2005년 세계유산 등재)



근대기의 세계유산 : 갈등과 극복의 조건

근대기의 세계유산 : 갈등과 극복의 조건

마치며

쟁점들

발제자의 관점

개요

사도섬의 금산

佐渡島の金山

Sado Island Gold Mines

16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의 극동 일본의 금광섬에서 국가의 관리·운영에 의해 해외와의 기술교류가 제한되는 가운데 유럽과는 다른 시스템의 발전을 통해 전통적인 수공업 을 대규모/장기적으로 지속한 금 생산시스템의 탁월한 예시



앞으로의 쟁점들

① 시기의 한정

센코쿠 시대 말 ~ 에도시대(전통적 수공업에 의한 금 생산 시대)

② 유산의 축소

3개 지역 9개 유산 → 2개 지역 3개 유산

- 니시미카와 사금광산(西三川砂金山)
- 아이카와·츠루시 금은광산(相川鶴子金銀山) : 아이카와 금은산 + 츠루시 은산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따른 대응

2022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학술 세미나

일본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도광산’의 강제동원 역사 왜곡

Session 02. 지정 토론

01.
미쓰비시 사도(佐渡)광산 조선인 강제노동 실태

허광무(한일민족문제학회 회장)



01. 미쓰비시 사도(佐渡)광산 조선인 강제노동 실태

허광무(한일민족문제학회 회장)

일본은 지난 2015년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는 과정에서 우리와 역사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온전한 역사를 전달하지 않아 우리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측 대응팀에서 정혜경 선생님은 중요한 문제제기와 사실 규명 등에 대해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선생님은 이번 사도광산과 같은 사태를 우려하여 현장 답사와 관련자료 수집, 피해자 조사 등 진실규명에 힘써 오셨습니다. 선생님의 선견적인 행보에 감탄과 경의를 표하면서 간단하게 소감과 질문을 해 볼까 합니다.

1. 미쓰비시는 지난 2015년 메이지 근대산업혁명 관련 산업유산군의 하나로 미쓰비시 나가사키조선소와 군함도를 포함한 미쓰비시 다카시마탄광을 세계유산에 등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신청에 들어간다면 두 번째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곳이 모두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의한 조선인 강제동원이 있었던 곳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의 현장이라는 점입니다.

미쓰비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대일본을 대표하는 3대 재벌 중 하나였고 일본 전역은 물론 한반도에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시기에 일본과 한반도에 산재한 미쓰비시계열 회사에 조선인을 노무자로 동원한 것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가령 18개의 탄광과 28개의 광산 외 조선, 제강, 기계 등 중공업분야를 더하면 그 수가 한반도 110개소, 일본지역 140개소, 기타 사할린·중국·만주 등 31개소, 총 281개소에 이릅니다. 일본 3대 재벌 중 최고입니다.(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2016,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이렇다 보니 향후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군함도나 사도광산에 머물지 않고, 미쓰비시계열의 제3, 제4의 세계유산 후보지가 등장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혜경 선생님은 발제문에서 다섯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 합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하며 토론자의 생각과 같은 부분도 있기에 깊이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중 가장 시급하다고 할까, 방점을 두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선

생님의 정부기관에서의 활동이나 연구를 통해 절실하게 느꼈던 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2. 강제동원 관련 자료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릴까 생각합니다. 보통 일제시기 강제동원 관련자료, 기록물이라고 하면 일제 패망시기의 자료 소각, 그리고 한반도 6.25전쟁의 전란 속에 행해진 소각과 망실, 분실 등이 겹쳐 찾아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피해사실을 입증할만한 기록물은 가해기업이나 일본정부가 생산, 소장하고 있다보니 접근이 어려워 엮힌 데 덮친 격으로 연구환경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일제시기 인력동원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적이며 정책적으로 수행한 것이기에 관련 법령이 잘 정비돼 있었고, 그 법령에 따라 노무관리, 인력양성이나 배치 등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우 많은 명부나 자료가 생산, 비치되고 있었으므로 동일 명부를 수 없이 많은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많은 자료에 접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오늘 주제인 사도광산과 관련해서도 군이 미쓰비시가 소장하는 자료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면, 가령 연료 배급명부라던가 조선 총독부 명부, 공탁금 관련 자료라던가 하는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가 직접 소장한 자료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명부나 회사측 기록물과 피해당사자들의 면담 등을 수집하여 분석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추적하여 사도광산의 진실에도 접근했는데요, 혹시 이 과정에서 그간의 연구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추가적으로 규명했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끝으로, 우리는 지난 근대시기 역사유적에 대해 어떻게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한 자기 성찰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된 유적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사태를 계기로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만들어진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개발로 많은 시설이나 구조물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엄연히 우리 근대사를 보여주는 역사유적입니다. 일제의 잔재라며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제에 의한 통치를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만 남기고 불편한 것들은 숨기거나 제거하면 일본정부가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니까? 우리의 역사를 온전하게 보존하여 전달하지 않는 것도 역사왜곡입니다.

선생님은 오랫동안 한반도에 산재해 있는 전쟁유적에 대해서도 관심과 조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실태조사에도 참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전쟁유적과 관련하여 선생님이 알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보존실태와 활용에 대해 느끼신 점, 문제점 등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학술 세미나

일본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도광산’의 강제동원 역사 왜곡

Session 02. 지정 토론

02.
강동진, 「근대기의 세계유산: 갈등과 극복의 조건」

조건(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02. 강동진, 「근대기의 세계유산: 갈등과 극복의 조건」에 관한 토론

조건(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강동진 선생님의 ‘근대기 세계유산’에 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세계유산 전체를 조감하면서도 핵심적인 얘기를 잘 정리해 주셔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사례들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이를 ‘갈등과 극복’이라는 테마로 풀어주신 부분(「근대기 세계유산의 유형은 어떠한가?」)이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사례들을 잘 설명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추가할 것은 없고, 다만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용어와 쟁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문 드릴까 합니다.

첫째, 세계유산의 보편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주지하듯 보편적이라는 것은 두루 통용되는,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관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세계유산 유형들을 설명하면서 “보편적 희소성이 강조되는 유산 등재의 경향 확장”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희소한 것, 또는 특수한 것이 꼭 보편적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얼핏 보편과 특수, 희소는 잘 어울리지 않는 가치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희소하면서 보편적인 유산의 등재 경향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달리 말하면 희소하고 특수하지만 이것이 인류 보편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제시하고 또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요.

둘째, 세계유산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의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탁월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탁월하면서도 보편적인 성질을 갖는 유산이어야 한다는 것일 텐데요. 결국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안 된다는 우리의 주장의 핵심에는 사도광산이 탁월성과 보편성 두 측면에서 모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들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모든 얘기를 해주실 수는 없겠지만 이 두 지점에서 사도광산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조선인 강제동원에 관한 사실은 OUV와 어떻게 상충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셋째, 사도광산과 같은 유산을 ‘부정적인 유산, 불편 유산, 부의 유산’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시도가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어질 텐데요. 이들 용어가 다소 부적절하다는 인상이 듭니다. 용어의 뉘앙스로 인해 그것이 갖는 가치보다 ‘부정적’ 선입견이 먼저 전달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 용어를 좀 더 포괄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용어로 치환할 수는 없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들 유산이 세계유산으로의 가치를 갖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부정적’이어서라기보다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효용이 있는 유산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선생님께서도 이들 유산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으나 교훈의 대상이 되는”이라고 언급하셨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정의 회복 유산(Restoration heritage for justice)’과 같은 명칭도 고려해 보직 합니다. 물론 성급한 시도이고, 또 사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네스코 현장이 떠올라서 제안해 봅니다.

넷째, 선생님께서는 ‘부정적인 유산’이 “세계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떨어”진다고 하셨는데요. 요컨대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떨어지지만 후대에 대한 교육 제공의 의미가 있어서 ‘부정적인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힘듭니다. 다시 한번 ‘보편 가치’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인류라는 종의 위협이 되었던, 19세와 20세기 제국주의·식민주의·전체주의 등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유산’이야 말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요. 유산의 역사적 중요성과 세계유산의 보편 가치는 조금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진 선생님과 정혜경 선생님께 문의 드립니다. 사도광산의 쟁점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시기를 한정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유산 자체를 축소해서 등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우리 언론에서도 이른바 꿈수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지난 군함도 등 메이지산업유산 등재 때 세계유산위원회가 ‘전체역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만큼 이러한 꿈수가 얼마나 효율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아시아태평양전쟁기 강제동원 사실과 그에 대한 반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겁니다. 여기에 당시 일본 정부가 조선인들의 동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정혜경 선생님께서 당시 식민 당국의 자료를 발굴해서 사도광산 조선인 동원의 실태를 밝히신 바 있는데요. 추가적인 자료가 발굴된 여지가 있을지, 그리고 당시 일본 정부의 개입 여부가 우리 정부의 주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그동안 세계유산 관련해서 수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논의에 직접 참여해 오셨기 때문에 다소 지엽적인 것까지 모두 여쭙었습니다. 너무 기본적인거나 우둔한 질문이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memo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6층

02-721-1800 www.fomo.or.kr